

#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強과 韓國의 安保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光 日

指導教授 高 性 俊

1984年 月 日



# 目 次

第1章 緒 論 .....	1
第1節 研究目的 .....	1
第2節 研究方法 및 範圍 .....	3
第2章 蘇聯의 極東政策과 軍事力增強 .....	4
第1節 蘇聯의 極東政策 .....	4
第2節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強 .....	8
第3章 周邊國家의 對應政策：反蘇聯合體制的 構築 .....	19
第1節 反蘇聯合體制的 形成背景 .....	19
第2節 反蘇體制國家의 東北亞政策과 反蘇對應能力 .....	21
第3節 反蘇體制의 問題點 .....	28
第4章 蘇聯의 極東軍事力과 韓國의 安保 .....	31
第1節 韓國의 安保와 國際關係 .....	31
第2節 蘇聯極東軍의 增強과 韓國의 安保 .....	33
第5章 結 論：對應策 .....	40
參考文獻 .....	46
Abstract .....	50

# 제 1 章 緒 論

## 第 1 節 研究目的

80 年代의 國際情勢는 한마디로 불투명하고 불안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70 年代初 정착되었던 美·蘇間의 「테탕트」 구조가 瓦解되고 세계도처에서 미·소 간의 대립과 갈등이 表出되면서 긴장상태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으로 80 年代의 긴장상태를 新冷戰狀態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多中心兩陣營體制(bipolycentric system)라고 하는 理念에 따른 兩大國家集團의 골격에서 여러 勢力이 多角的 均衡을 모색하는 複合體制 속으로 展開되고 있으면서도 國家集團의 對決보다는 미·소간의 직접대결을 不辭하는 경쟁(competition with possible confrontation) 樣相을 띠고 있다.<sup>1)</sup> 이러한 세계적 긴장상태는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에서 더욱 심화되어 1975 年 越南敗亡이후 極東에서의 蘇聯軍의 增強은 質·量的으로 팽창되어 왔는데 現在 極東地域에 전개되고 있는 소련의 軍事力은 전체 소련군에 있어 地上軍은  $\frac{1}{4}$ , 海軍力은  $\frac{1}{3}$ , 空軍力은  $\frac{1}{4}$ , 그리고 戰略核戰力은  $\frac{1}{4} \sim \frac{1}{3}$ 을 차지하므로써 그 긴장상태는 고조되어 있다.

이와 같은 極東에서의 軍事力增強은 韓國을 비롯한 日本, 中共 등 周邊 亞細亞諸國들에게 민감한 安保上的 威脅을 주고 있으며 秩序再編을 둘러싸고 未定型狀態에 있는 이地域의 國際關係에 對策講究를 爲한 불가피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더구나, 韓半島는 地政學的인 特性으로 大陸勢와 海洋勢間의 交叉地點에 位置하고 있어 스스로 強力한 힘을 保有하지 않는 限 이 兩大勢力間의 相互衝突로 犧牲物이 되기 쉬운데<sup>2)</sup> 時代의 흐름에 따라 세계 4 강 세력의 이해관계로 韓半島를 사이에 두고 善隣과 敵對關係를 번갈아가며 冷戰과 熱戰을 되풀이 하여 왔다.

1) 李相禹, “美·蘇新冷戰의 意味와 韓半島 統一環境”  
統一論叢, 3 권 2 호, 1983. pp.1 ~ 8.

2) 洪鍾赫, 「政治地理學」(서울: 共和出版社, 1968), p.125.

蘇聯은 그동안 韓國의 安保政策에 있어서 變數 아닌 常數로 다루어져 왔었고 먼 나라로 認識되었는데 이제는 韓國의 安保에 直接的인 威脅要素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地理的으로 韓半島와 直接 陸續되어 있고 韓國의 最近世史에서는 무시 못할 外部影響要素로 作用하여 왔었으며 더구나 韓半島의 38線 以北에 軍隊도 駐屯했고 北韓에 衛星國을 세운 蘇聯이 우리의 主敵인데도 美國과 北韓이 防波堤的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sup>3)</sup>

80年代에 들어 서면서 이러한 國際情勢는 變化되고 極東에서의 蘇聯軍事力은 對美優位를 確保케 되면서 이에 對處하려는 美國이 日·中共과의 協力關係를 본격화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우방국가와의 軍事協力體制는 물론 독자적인 安保對策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날 國家의 大小를 막론하고 自國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주어진 安保環境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一般的으로 國家의 安全을 가장 크게 威脅, 파괴하는 것은 外部로부터의 侵略이므로 安保란 侵略이 없는 狀態의 確保 즉, 첫째 侵略을 未然에 防止하고 이미 發生한 侵略에 對하여는 이것을 배제하며, 둘째 侵略의 防止 또는 排除를 단지 侵略國과 被侵略國 쌍방간의 問題로만 보지않고 관련되는 集團體制의 利害事頂으로 취급하여 集團全體의 힘으로써 侵略이 없는 狀態를 確保함을 意味한다.

侵略의 形成은 外國의 敵對勢力이 國內의 破壞分子를 支援하여 間接侵略을 기도 하는 것으로 그 使用手段面에서는 軍事的 手段과 非軍事的 手段으로 그 樣相과 類型을 달리한다. 主威脅要素는 과거나 現在에도 軍事力이 核心이 되며 各國은 自國의 利益追求를 合理化하기 爲해 軍事力을 行事하고 國際政治의 궁극적인 制裁手段이 될 뿐만아니라 非軍事的 手段의 効用을 높여 주는 背景이 되기도 한다.<sup>4)</sup>

따라서, 韓國과 같이 敵對集團을 目前에 두고 있고 強大國들이 周邊을 에워싸아 利害關係가 相衝되고 있는 國家로서는 관련되는 國際安保環境의 推移와 變化,

3)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II」(서울: 考試研究社, 1980), pp.183 ~ 184.

4) 李茂雄, 「安保와 統一政策」(서울: 大旺社, 1982), p.21.

또는 傾向에 더욱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이 處해 있는 國際安保問題를 評價함에 있어 四大強國의 對外政策이나 軍事力を 注視하고 分析, 檢討하는 일이 重要한데 그 中에서도 最近에 계속 增強되고 있는 極東의 蘇聯軍事력과 그 對應勢力을 考察하고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여 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데 本論文의 目的이 있다.

## 第 2 節 研究方法 및 範圍

研究方法으로는 極東地域의 蘇聯軍事戰略과 能力, 그리고 이에 對應하는 反蘇體制國家들의 能力을 各種文獻과 論文, 資料등을 分析하여 이로부터 導出되는 諸般 威脅要素들을 綜合하고 여기에 對한 우리의 對應策을 모색하는 體系的 分析方法(systemic analysis)과 比較接近方法(comparative approach)을 適用하기로 한다.

研究範圍로서는 極東에서의 蘇聯軍事力の 增強實態를 考察하여 東北亞 및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과 이에 對한 對應策을 摸索하기 爲하여

第 2 章에서는 蘇聯의 極東政策과 韓半島政策을 分析하고 展望하며 現在 배치된 兪중인 極東軍事力の 戰略과 戰力を 調査, 評價한다.

第 3 章에서는 蘇聯이 極東軍事力の 增強에 따른 周邊國家들의 對應軍事戰略과 對蘇軍事力を 比較, 分析하여 評價하고 展望한다.

第 4 章에서는 國際關係와 韓國의 安保, 蘇聯極東軍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등을 分析하여 그 威脅要素를 考察한다.

第 5 章에서는 極東에서 蘇聯軍事力の 增強과 南進政策에 따른 우리의 對應策을 摸索하여 安保上的 威脅에 對處하고자 한다.

## 제 2 章 蘇聯의 極東政策과 軍事力 增強

### 第 1 節 蘇聯의 極東政策

#### 1. 政策目標

大陸的 國家인 蘇聯은 16 세기 중엽 帝政「러시아」 황제인 「이반 6 세」에 의해 濶帶地域 不凍港의 確保를 위해 「시베리아」로 進出하면서 東進 및 南進政策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이제 蘇聯은 極東에서의 政策目標를 世界革命戰略에 두고 長期的으로<sup>5)</sup> ① 世界的인 힘의 配分狀況이 自國에 유리하게 展開되도록 유도하며 ② 美國과의 直接對決을 회피하는 정도의 「데탕트」를 유지하고 ③ 軍事力을 增強하여 이지역에서의 힘의 優위를 확보하므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目標아래 소련은 極東에서 軍事力을 대폭 增強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데<sup>6)</sup>

첫째, 中共의 勢力과 影響力을 封鎖하면서도 同時에 中·蘇和解의 問戶는 계속 開放시킨다.

둘째, 世界의 勢力均衡을 轉換시키려는 계속적인 努力의 一環으로서 美國을 防禦態勢에 묶어 두고 그의 太平洋同盟國들을 分離시킨다.

셋째, 日本의 再武裝을 억제하면서 美國으로부터 이탈시켜 中立化 또는 親蘇化시켜 나간다.

넷째, 極東에서 어떠한 反蘇體制, 특히 美·日·中共에 의한 東·西軸의 聯合戰線을 沮止하고 이를 위해 「시베리아」, 「北韓」, 「아프카니스탄」, 「인도차이나」, 「남예멘」으로 이어지는 南·北軸을 構築한다.

5) 李相禹, 前掲書, p.216.

6) Richard H. Solomon(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Problems and Policies for a time of transition* (California: Santamonica, 1979), p.104.

다섯째, 極東駐屯 蘇聯軍事力を 東北亞의 中心勢力으로 增強한다.

여섯째, 全 「아시아」의 事頂에 對하여 蘇聯의 政治的, 軍事的影響力を 擴大하면서 아시아諸國들에 대한 「핀란드化」를 꾀한다.

蘇聯은 이러한 政策을 軍事戰略化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 2. 極東軍事戰略

### 가. 對美戰略

蘇聯 極東軍事力の 對美戰略目標로서는 東歐의 蘇聯主力軍에 버금가는 強力한 軍事據點을 極東地域에 構築하여 對美優位를 確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美軍戰力を 極東에 묶어 두고 유사시 유럽 및 인도양쪽으로 集中을 못하게 하여 美國의 「스윙」<sup>7)</sup> 戰略을 무위화시키며,

② 美國의 核能力과 通常戰力を 分散配置토록 강요하여 美國의 「1.5」 戰略도 虛構化시키고,

③ 極東에서 美國의 本土를 直接 攻擊할 수 있는 「ICBM」, 「SLBM」 및 장거리 폭격기의 基地를 「블라디보스톡」에 설치하며,

④ 아시아·태평양地域에 存在하는 美軍基地 및 第7艦隊의 기동함대 격멸을 위한 「IRBM」, 「중거리 폭격기」 및 강력한 潛水艦隊와 航空母艦을 配置시키고,

⑤ 美國의 海外基地와 友邦國들 간의 航路 및 兵站線을 차단하여 이를 고립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이다.<sup>8)</sup>

從前까지 蘇聯의 「SLBM」이 美本土를 攻擊하려면 極東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를 中心으로 한 「알류산」列島를 發射基地로 擇해야 했으나 最近에 「SS-N-18」을 積載한 「D」-I, II級 核潛水艦이 極東에 配置됨으로서 「오호츠크」

7) 「스윙」 戰略(SWING Strategy)이란 「유럽」이 소련의 공격을 받을때 「아시아·태평양」地域에 配置된 美海軍力の 50%와 陸軍 및 海兵隊 兵力, 그리고 B-52 전략폭격기 등을 西歐로 移動시켜 「NATO」軍을 增援하는 東北亞 戰力の 對西歐轉進計劃을 말한다.

8) 裴名五, “蘇聯의 極東戰略과 軍事能力” 「自由公論」, (1983.7), pp.77~78.



海의 對美核戰力 基地化計劃을 추진하면서 同時에 日本北方 四個島嶼에 前進基地를 確保하고 있다.<sup>9)</sup>

#### 나. 對日戰略

蘇聯은 美·日·中共의 反蘇協力體制構築을 憂慮하여 極東地域의 戰略的 要衝地인 日本北方의 「쿠나시리」(國後), 「에도로후」(擇捉), 「시꼬땅」(色舟)을 中心으로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까야가반」에서 「캄차카」半島로 連結되는「오호츠크」海를 軍事基地化하여 日本에 威脅을 加하고 있는데 이는 美國의 核保護下에 있는 日本에게 政治的, 軍事的 壓力을 가하므로서 日本의 「핀란드化」(finlandization)를 획책하려는 것이다. 蘇聯은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中東地域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의 海上輸送路를 遮斷하여 日本의 經濟 및 政治까지 統制가 可能하게 될 경우 日本의 「핀란드化」는 必然的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對日戰略은<sup>10)</sup>

- ① 日本北方 四個島嶼를 軍事的으로 강화하여 유사시 日本 本土에 對한 상륙가 능성을 認知시키고,
- ② 必要하다면 日本을 核武器로 攻擊할 수 있다는 核武器 使用意志를 암시하며,
- ③ 日本列島를 사이에 두고 東海와 太平洋沿岸일대를 자주 武力示威化하고,
- ④ 東支那海를 蘇聯軍의 制海權下에 두므로서 日本의 海上輸送路를 威脅하여 궁극적으로 美·日安保體制를 붕괴시켜 日本의 中立化 및 親蘇化를 유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 다. 對中共 戰略

中·蘇理念紛爭以後 中共이 反蘇親美政策으로 전환하자 蘇聯의 極東軍事力은 對 中共 軍事威脅을 위한 방편으로 使用되어 왔는데 最近에는 中共 海南島의 海軍基

9) 國際問題調查研究所, 「東北亞 四強의 軍事力現況」(研究資料 第1集), 1980.3, p.249.

10) 上揭書, p.250.

地 및 三亞, 黃流의 空軍基地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베트남」의 「다낭」 및 「캄란」灣을 戰略基地化했다.

또한 中·蘇國境地帶에 「SS-20」 미사일을 配置하여 (40-70 基) 中共의 심장부를 向하고 있으며 40 萬의 기갑 및 기계화사단을 展開시켜 北方을 遮斷하고 있다. 中共의 西쪽으로는 「아프카니스탄」을 점령하여 戰略要衝地인 「와칸」에서 「위크르」 自治區로 通하는 道路를 建設하여 中共과 「파키스탄」을 連結하는 戰略通路인 「카라코룸」고속도로에 對한 威脅을 增加시키므로써 中共을 陸·海上에서 完全 遮斷시키고 있다.

이러한 戰略은 증가되는 中共의 影響力擴大를 抑制하고 美·日과 聯結하는 反蘇東·西軸 聯合戰線 構築을 封鎖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sup>11)</sup>

### 3. 對韓半島 政策

蘇聯과 韓半島는 接境된 國境線으로 西番浦口로 부터 豆滿江역까지 16.98 km 가 接續되어 있는데 이는 1860 年에 체결된 「北京條約」에 의해 「시베리아」의 沿海州일대가 露領化되면서였다.

1905 年 帝政「러시아」는 不凍港획득을 위한 南進政策을 시도하다가 日本과의 露·日戰爭에서 패배한 후 1945 年 太平洋戰爭에 참여 할 때까지 40 년간 極東地域進出이 不可했었다. 戰後 北韓地域에 衛星國을 세운 蘇聯은 「韓國戰爭」을 支援하였고 1960 年代에 北韓과 友好協力과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했는데 70年代以後 韓半島政策에 對한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北韓만을 인정하던 「하나의 韓國政策」에서 「두개의 韓國」을 묵시적으로 認定하려 했는데 이러한 蘇聯의 對韓政策은 對美, 對日, 對中共政策에 종속되어 있다.<sup>12)</sup>

80 年代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目標은<sup>13)</sup>

첫째, 韓半島에서의 蘇聯의 影響力을 現狀대로 維持하는데 두고 있다.

11) 裊名五, 前掲論文, p.78.

12) 金學俊,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自由公論」 (1981.8), p.167.

13) 黃義瑋, “韓·美·日安保協力體制와 韓國의 安保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pp.25 ~ 26.

둘째, 美·中共關係 改善과 韓國의 地政學的 與件 및 傳統的인 韓·中關係를 참작하여 장차 中共이 對北韓 影響力 增大에 對應한 조치로서 統一韓國보다는 分斷된 韓國의 現狀維持政策을 採擇하고 있다.

셋째, 最近 美國이 美·日·中共의 東·西 三角體制를 形成하는 일환으로 韓半島全體가 美國의 影響下에 들어가서 蘇聯의 極東艦隊 進出을 封鎖하지 않을까 하는데 着점을 두고 蘇聯은 可能的한 韓半島의 問題解決에 直接 參與하려 한다.

이러한 極東政策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고 影響力을 擴大하기 위해서 蘇聯은 軍事的 優位를 確保하고 質·量的 軍事力 增強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에 對해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 第 2 節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強

### 1. 背 景

蘇聯의 軍事力增強은 「브레즈네프」時代가 시작된 1965年 부터이며 核戰略武器가 主種을 이루면서 地域的으로는 極東地域에 重點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中·蘇紛爭에 의한 무력충돌이후 美·中共이 接近을 시작했던 1969年과 1972年 직후에 급속한 軍事的 成長이 이루어 졌다.

蘇聯은 二次大戰以後 歷史的으로 侵略을 받아 왔던 陸續된 歐洲地域에 防禦線을 確保하기 위하여 東歐圈을 衛星化시키고 主力部隊를 進駐시켜 「바르샤바」條約軍을 創設했다. 또한 「NATO」軍과의 경쟁에 군비를 증강시켜왔다. 반면에, 極東地域의 戰力配分에는 戰略的 優先順位를 두지 않고 있었는데 戰後 極東地域에는 中共과 友好關係에 있었고 韓半島에는 北韓에 武器支援만으로 韓國軍은 壓倒할 수 있었으며 敗戰日本의 軍事力은 「제로」狀態였다. 그리고 美國의 太平洋戰力이 地域內 殘存하고 있었으나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어 極東에 蘇聯軍을 轉進시킬 必要性이 없었다.

그러나 60年代以後 東北亞에서의 急激한 情勢變化는 蘇聯으로 하여금 對極東政策을 轉換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첫째, 共產主義革命으로 思想的 同伴關係에 있던 中共과의 理念葛藤이 國境武力 衝突로 激化되면서 서로가 第1級敵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둘째, 東·西「데탕트」政策의 成功과 美國과의 第二段階 戰略武器制限會談의 妥結, 그리고 歐洲安保協力會談의 結成등으로 「유럽」에서 상당히 유리한 立場이 된 蘇聯으로서는 새로운 「아시아」地域 赤化戰略이 可能하게 되었다.<sup>14)</sup>

셋째, 「베트남」戰爭以後 美國이 「아시아」에서 퇴조현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힘의 공백기를 이용하려는 蘇聯의 對東北亞政策이 전환되게 되었다.

넷째, 極東地域에서 가장 견제하는 日本이 情勢變動에 따라 再武裝이 現實化 되기 시작했다.

다섯째, 70年代 들어서 美國의 「카터」行政府에 의해 實現될듯 했던 駐韓美軍의 撤收가 凍結되면서 美軍이 「아시아」駐屯이 계속되었다.

여섯째, 80年代에는 美·日·中共에 의한 東·西軸이 構築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蘇聯의 極東軍事力은 더욱 強化될 樣相을 보이게 됐다.

특히 蘇聯의 極東 太平洋艦隊의 세력증강은 매우 괄목할 만하여 「아시아」諸國家들에게 커다란 威脅要因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 2. 蘇聯極東軍의 編成

蘇聯의 極東軍事力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蘇聯軍 全體에 對한 編成을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蘇聯軍은 國防省 統治下에 五個支軍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① 戰略「로켓트」軍 ② 地上軍 ③ 國家防空軍 ④ 空軍 ⑤ 海軍으로 分類하고 있다. 광범위하게는 內務省 산하의 保安隊와 國家保安協議會 산하의 國境守備隊도 蘇聯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個支軍에 對한 직접 지휘통솔은 國防相의 權限에 속하나 最高指揮權은 平時에는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산하인 國防評議會가, 戰時에는 國防委員會가 이를 行事하도록 되어 있다. 國防評議會나 國防委員會는 모두 共產黨 書記長

14) 裴名五, “80年代의 美·中·蘇關係가 韓半島에 미치는 軍事的 影響” 「國防研究」, 第23卷, 1號, (1980.6), pp.24~25.

에 의해 주재된다.

國防相은 일반참모와 5個支軍, 16個 地上軍區<sup>15)</sup> 10個 防空區, 4個의 海軍艦隊<sup>16)</sup> 및 東歐에 配置된 「WARSAW」條約國內 4個의 駐屯軍을 指揮, 통솔하고 있다.

5個支軍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고유 作戰업무를 수행하는데<sup>17)</sup>

① 戰略「로켓트」軍은 5個支軍中 제 1의 정예군으로서 中·長距離 核「미사일」部隊를 指揮, 作戰計劃, 遂行하는 임무를 맡고 地上「미사일」외에도 戰術武器를 제외한 潛水艦 탑재 「SLBM」과 장거리 폭격기의 核武器를 指揮 統制하고 있다.

② 地上軍은 兵力面에서 제 1의 支軍으로 戰術核戰, 在來戰, 化生戰, 對地上戰鬪 遂行 임무와 戰術航空隊의 統制를 맡고 있으며 最近에는 선제공격과 기습공격 전략을 중요시 하여 核戰狀況下에서도 地上軍作戰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③ 國家防空軍은 도시, 産業시설 및 후방군사시설을 방어하며 소련영토에 침입하는 적 항공기, 「미사일」에 對한 요격책임을 맡고 있다. 주요장비로는 요격용 전투기, 대공무기, 「미사일」요격용 「미사일」, 각종 「레이다」, 통신시설등을 관장한다. ④ 空軍은 地上軍에 對한 전투, 정찰, 수송지원업무를 맡고 장거리 항공대는 國防省에서 직접 統制하고 있다.

⑤ 海軍은 對艦, 對空能力和 수송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極東地域의 蘇聯軍의 編成은 〈圖 1〉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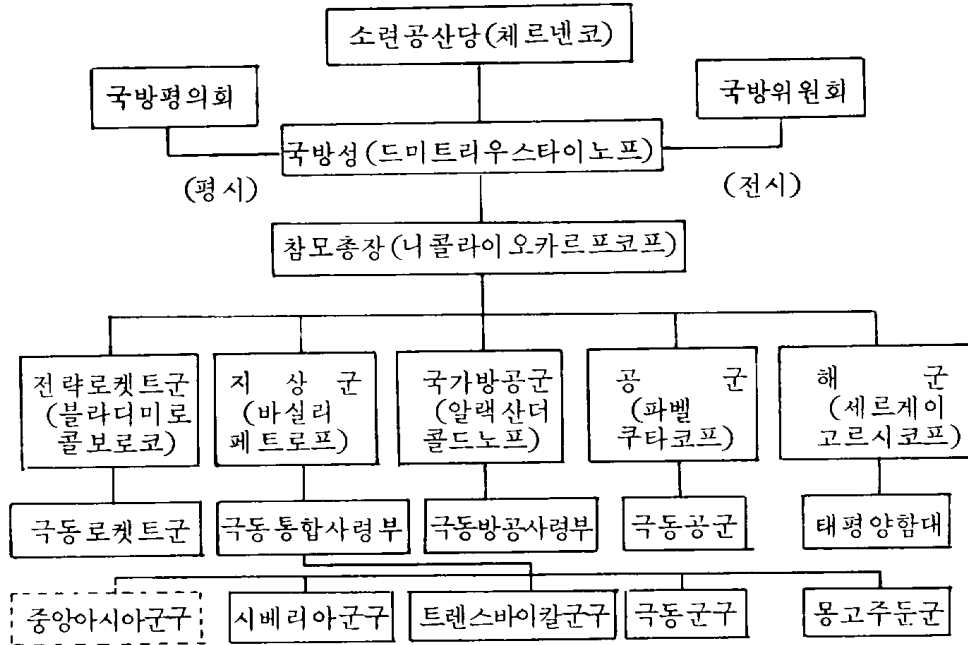
15) 소련의 16개 地上軍區는 다음과 같다.

① 발틱해군구 ② 바이엘로러시아군구 ③ 카데치안군구 ④ 오데사군구 ⑤ 레닌그라드군구 ⑥ 모스크바군구 ⑦ 코카스횡단군구 ⑧ 볼가군구 ⑨ 우랄군구 ⑩ 터키스탄군구 ⑪ 키에프군구 ⑫ 북코카스군구 ⑬ 중앙아세아군구 ⑭ 바이칼횡단군구 ⑮ 시베리아군구 ⑯ 극동군구

16) 소련의 4개 해군함대는 北함대, 발틱함대, 黑海함대, 태평양함대가 있으며 1개의 소함대로 카스피안 소함대가 있다.

17) 劉鍾烈, “蘇聯極東軍事力の 보강과 東亞細亞의 安保” 「統一安保」, (1983.9), pp.320 ~ 321.

〈圖 1〉 極東地域의 蘇聯軍 編成



### 3. 蘇聯의 極東軍事力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軍은 5個 支軍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그 能力을 ① 核戰力 ② 地上戰力 ③ 空軍力 ④ 海軍力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核戰力

極東地域에서 가장 큰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이 蘇聯의 中·長距離 核「미사일」로 構成된 戰略「로켓트」 부대이다.

戰略核戰力에 있어서는 蘇聯 全體의 戰略「미사일」의 約 30%에 해당하는 「ICBM」 및 「SLBM」이 배치되고 있다.

1959년以來 「SS4」, 「SS5」 中距離 核「미사일」 70基를 中·蘇國境 및 몽고에 配置한 소련은 1979년부터 移動式「IRBM」(中距離 彈頭 미사일)인 「SS-20」을 配置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彈頭가 「MIRV」化됐고 사정거리가 4,400

km가 되며 총 335基中 1/3에 해당하는 110基가 極東의 10個基地에 配置되어 있다.<sup>18)</sup> 이것은 極東의 소련基地에서 美國의 本土를 직접 겨냥 발사할 수 없고 주로 韓國·中共·日本은 물론 필리핀과 광까지 사정권에 두고 核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종전에는 미국의 本土를 직접 공격하기 위하여 태평양쪽으로 艦隊를 發進시켜야 했으나 極東의 太平洋艦隊에 사정거리가 8,100 km인 「SS-N-18」을 장착한 「D」I, II級 核潛水艦이 配置되어 「오호츠크」內海에서 美本土에 對한 직접공격이 가능해 졌다.<sup>19)</sup> 따라서 소련의 極東에 對한 戰略的 重要性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나. 地上戰力

蘇聯의 極東管區에는 中共과 國境을 接하는 4個軍管區 - 中央아시아, 시베리아 트랜스바이칼, 極東一의 戰力과 蒙古駐屯소련군이 포함되는데 이 戰力은 주로 對中共作戰을 爲해 方向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地域에는 소련군 총병력 185만(184개사단)의  $\frac{1}{4}$ 에 해당하는 46만명(51개사단)이 配置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바이칼」湖水以東에는 約 36만명(39개사단)이 배치되고 있어 1965년에 20개사단에 比하면 2部に 가까운 增強추세를 나타내고 있다.<sup>20)</sup> 또한 極東地域에는 「블라디로스톡」과 인근지역에 15個師團, 「사할린」에 2個師團, 「캄차카」半島에 1個師團 및 日本 北方 4개도서에 1個師團이 駐屯하고 있다. 이같은 增強은 對中共 배치를 넘어 極東地域의 전반적인 戰略的 重要性和 關係되며 美·日·中共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sup>21)</sup>

그리고 소련은 增強된 極東軍의 효율적인 指揮體制를 爲해 1979年 「트랜스 바이칼」 軍事地域에 「시베리아」, 「바이칼」, 極東軍管區와 蒙古駐屯軍을 管轄하는 「極東全域 統合司令部」를 설치했으며 最近에는 「사할린」에 설치된 軍단사령부

18) 兪世鎭, “蘇聯의 極東軍事力” 「自由公論」, (1983.10), p.44.

19) 裴名五, 前揭論文, p.81.

20) SOVIET MILITARY POWER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S. Government, 1983), p.19.

21) 兪世鎭, 前揭論文, p.42.

를 승격시켰고 1981년에는 防空軍과 전선 항공부대를 統合한 防空司令部가 설치되었다.<sup>22)</sup>

主要裝備로는 最新型 戰車인 「T-72」가 1982년에 도입되었으며 一部 師團에서는 對空砲대신 新型 地對空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탱크」 1만 2천대, 각종砲 5천문등이 배치되어 있다.

#### 다. 空軍力

1960年以來 蘇聯은 極東空軍에 대한 增強과 現代化 計劃을 추진하여 戰術空軍의 固定翼機는 1966年 300機以下에서 現在에는 全體空軍의 약 1/4인 2천 2백 10臺의 항공기가 極東地域에 配置되고 있다. 이들은 전폭기 1천 1백대, 폭격기 4백 50대, 초계기 1백 60대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폭기의 반 이상이 기동성, 적재능력, 항속거리, 유도무기, 전자장비면에서 크게 개선된 MIG 23,25,27기 또는 수호이(Su) 24와 같은 제 3세대의 최신예 기종들이다.<sup>23)</sup>

또한 「바이칼」湖 서쪽 「이루쿠츠크」 부근의 「벨자야」基地에 最近「백파이어」 폭격기 1개 비행대 20대를 배치했으며 해군의 항공부대는 「알렉세예프스카야」基地에 「백파이어」 2개 비행대 약 50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超音速爆擊機인 TU-26 M「백파이어」는<sup>24)</sup> 可變後退翼, 最大速力「마하」2.25~2.5, 最大行動半徑(無給油)約 5,700 km의 中型爆擊機로서 核彈頭搭載 가능한 AS-4 或은 AS-6「미사일」(對地, 對艦 공격용)을 裝備하고 遠距離에서 攻擊할 能力을 갖추고 있다.

22) 兪世鎭, 前掲論文, p.42.

23) SOVIET MILITARY POWER, p.20.

24) 소련의 주요항공기 行動半徑은 다음과 같다.

MIG 17 (Fresco) : 300 마일	SU -17 (Fitter-C): 600 마일
MIG 19 (Farmer) : 425 마일	SU -19 (Fencer) : 525 마일
MIG 21 (Fishbed): 400 마일	TU -16 (Badger) : 1,500 마일
MIG 23 (Flogger): 700 마일	TU -22 (Blinder) : 1,500 마일
MIG 25 (Foxbat) : 500 마일	TU -26 (Backfire): 2,500 마일
SU-7 (Fitter) : 300 마일	YAK-28 (Firebar) : 600 마일



라. 海軍力

極東에는 蘇聯의 四個艦隊中 最大인 太平洋艦隊를 配置시키고 있는데 1960年初 主要海上戰艦艇 50隻에서 현재의 8백여척으로 놀라운 增強을 보여왔다. 「블라디보스톡」에 司令部를 두고 있는 太平洋艦隊는 全體蘇聯 保有함정의  $\frac{1}{3}$ 인 8백척(1백 60만톤)이 配置되고 있는데 1979年 增強된 航舟「민스크」는 「키에프」級 「미사일」 巡洋艦의 第5番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및 新型 揚陸強襲艦인 「이반로고프」와 더불어 79년 2월 配置되었다. 戰鬥機 Y<sub>2</sub>K-36(垂直離着陸 多目的 戰鬥機)와 對替「헬」機 K<sub>2</sub>-25 등 最大 40機를 塔載하는 航母「민스크」와 K<sub>2</sub>-25 「헬」기를 1臺씩 塔載하는 「카라」級 巡洋艦 10隻 및 「크리바크」級 驅逐艦 20隻은 모두 對潛「미사일」을 裝備하여 對潛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있다.

蘇聯 大太平洋艦隊의 戰力은 <表 1>과 같은데 潛水艦은 121隻으로 全소련잠수함의  $\frac{1}{3}$ 를 保有하고 있으며 海軍步兵(naval infantry)은 소련 전체의 1만 2천명 중  $\frac{1}{3}$ 인 2개연대 4천 6백명을 「블라디보스톡」 부근에 주둔시키고 있다.

<表 1> 蘇聯 太平洋艦隊의 戰力 (1982년 현재)

潛水艦	戰略	D級 SSBN	31 隻	121 隻		兩用戰艦艇	이반로II급 LPD	57 隻
	미사일	Y級 SSBN					로프차급 LST	
	潛水艦	H級 SSBN					알리카트급 LST	
		G級 SSB	뿔로츠라급 LCT					
	巡航	C級 SSGN	24 隻			170 隻	背戒戰艦艇	나누치카급 PGG
	미사일	E-II級 SSGN						오사급 PTG
	潛水艦	J級 SSG						벨찌급 PCE
		W級 SSG	66 隻			95	機雷戰艦艇	나찌급 M
	攻擊型 潛水艦	E-I級 SSN						T-58
		N級 SSN						T-34 MSF
Y級 SSN		유르키급 MSF						
W級 SS								
	F級 SS	110 대	12대	攻擊 爆擊機 戰鬥機	Tu-16			
	Z/B級 SS				Tu-22			
					YAK-36			

수상함정	항공모함	카에프級 CVSG	1 隻	415 隻	對潛哨戒機	Tu-95	120 대	382 대
	巡洋艦	카라級 CG	14 隻			IL-38		
		크레스타-II급CG				Be-12		
		크레스타-I급CG				Ka-25		
驅逐艦	킨다급 CG	28 隻	Ml-14					
	스베드로II급 CL		給油 隻察機	Tu-16	80 대			
	護衛艦		크리바급 DDG	50 隻	기타	各種機	68 대	
카닌급 DDG								
칼딘급 DDG								
카신급 DDG								
	코드린급 DDG							
	코드린급 DD							
	스코라급 DD							
	라가급 FF							
	콜라급 FF							
	마르카급 FFL							
	크리샤급 FFL							

出處：日本防衛廳，1980.7

Asian Security, 日本平和安保研究所, 1979.9.

Jane's Fighting Ship 1982~1983. 자료참조 일부수정한것임.

#### 4. 蘇聯 極東軍의 活動狀況

極東 蘇聯軍의 軍事活動은 「아시아」大陸를 둘러싼 西太平洋, 東支那海, 印度洋의 廣大한 海域에서 海軍 및 空軍이 展開되고 있는데 84년 3월 太平洋艦隊의 「빅토르 I」級 核추진 공격 잠수함이 「팀스피리트」- 84 韓·美合同훈련을 감시하다 美 第七艦隊 航母 「키티호크」와 東海上에서 충돌하므로써 소련군의 活動이 韓國의 安保에 직접적인 威脅이 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sup>25)</sup> 이외에도 83年 「팀스피리트」 훈련시 3隻의 潛水艦이, 84年 훈련시는 5隻이 첩보활동을 실시

25) 中央日報, 1984.3.22 字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소련 極東艦隊의 훈련도 活發하여 82年 9月에는 東海에서 11대의 「백파이어」기 편대가 航母 「민스크」를 美國의 기동함대로 가상하여 장거리 출격 攻擊 훈련을 실시했고 美 7 함대의 「엔터프라이즈」와 「미드웨이」 航母를 中心으로한 특별기 동함대 16 隻이 「쓰가루」(律輕) 해협을 통과 동해로 진입하자 극동의 「백파이어」기들이 긴급 발진하여 模擬 「미사일」 발사 가상공격을 전개하기도 했다.

蘇聯은 이미 韓半島의 東海를 戰略核 潛水艦의 作戰海域의 하나로 포함됐음이 확인되고 있으며<sup>26)</sup> 美 함정들이 東海진입이 줄어들어 대신 소련 함정의 活動은 더욱 活發해지고 있다. 과거 5年間(78-82年) 소련해군의 活動을 보면 연평균 대한 해협 통과 165 隻, 「쓰가루」(律輕) 및 「소오야」(宗谷) 해협 통과 265 隻으로 총 430 隻이 東海에서 太平洋으로 航海했고 항공기인 경우 192 회의 동해상공 출현과 7 회의 대한해협 상공 통과 사실을 日本防衛廳이 시사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소련 극동군이 동해상에서의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의 안보 위협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5. 展 望

지금까지 前衛한 바와 같이 極東에서의 蘇聯軍의 戰力은 계속 증강되어 세계의 어느지역보다도 강력한 軍事力을 보유케 되었는데 이를 종합 評價하고 展望하려 한다.

蘇聯의 軍事力(表 2 참조)의 비중에 있어 極東地域에 配置된 名軍의 비율은 地上軍  $\frac{1}{4}$ , 戰略核戰力  $\frac{1}{4} \sim \frac{1}{3}$ , 空軍力  $\frac{1}{4}$ , 海軍力  $\frac{1}{3}$ 을 차지함으로써 蘇聯이 對極東 軍事政策의 重要性을 評價할 수 있다.

美國防省이 84年 「소련군사력 보고서」에서는<sup>28)</sup> 소련의 극동공군력은 최신형인 「플로거」와 「펜서」機로 現代化 시키고 있고 1천 8백대의 항공기들을 中共과 日本을 目標로 作戰 配置하고 있으며 40대의 「백파이어」기를 포함 1백 70대

26) 每日新聞, 1984.4.16 字

27) 裴名五, 前揭論文, p.82.

28) 中央日報, 1984.4.12 字

의 中・長距離 爆擊機를 배치 했다고 한다. 또한 太平洋艦隊에는 航母 1 隻, 主要

〈表 2〉 蘇聯의 軍事力

(1983 年度)

人 口 : 271,800,000 名 兵 役 : 陸軍, 空軍 2 年, 海軍, 國境守備隊 2 ~ 3 年 總兵力 : 5,050,000 名 GNP (推定) : 1,350 ~ 1,600 억불 (1982 년도) 國防費 ( // ) : 501 억불 (1982 년도)	
區 分	兵 力  및  裝  備
戰 略 核 軍	攻擊力 海軍 : 潛水艦 80 隻, SLBM 980 基 戰略로케트軍 : 兵力 325,000 名, ICBM 1,398 基 IRBM, MRBM 599 基 支援軍 : 520,000 名 長距離 空軍 : 兵力 100,000 名, 戰鬥機 809 臺
	防禦力 防空航空部隊 : 兵力 : 630,000 名, 航空機 1,250 臺 SAM기지 10,000 個, 核彈頭 7,300
地 上 戰 力	兵力 : 1,800,000 名 (184 사단) 戰車 50,000 臺 裝甲戰鬥車 62,000 臺 砲 20,000 門 SSM 발사대 1,300 基
海 上 戰 力	兵力 : 460,000 名 巡航미사일 및 攻擊用潛水艦 276 隻 主力戰鬥艦 : 290 隻 航母 : 4 隻 海軍航空隊 : 68,000 名 戰鬥機 755 臺 Hell 機, 300 臺 폭격기 (Tu-22M Backfir B) 100대외 1,090 대 海軍步兵 : 14,500 名
航 空 戰 力	兵力 : 365,000 名 戰鬥機 5,950 臺, 무장Hell 기 2,300 대, 기타 2,200 대
準 軍 事 力	兵力 : 450,000 名 (KGB, 保安隊)

出處 : The Military Balance 1983 ~ 84, IISS. 참조

海上戰鬪艦 88 隻, 潛水艦 125 隻, 기타 전투함 1백 12 隻, 海軍항공기 4백 40 대 등이 배치됐고 核戰力에 있어서는 4세대인 SSX18과 SSX 19 「ICBM」의 現代化를 끝내고 5세대인 SS×24와 SS×25 「ICBM」을 시험하고 있다. 83年에 SSN 20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던 2만 5천톤의 「타이푼」級 「SLBM」 잠수함이 作戰中에 있으며 SSN×23 「미사일」을 시험중에 있다.

또한 從前 蘇聯極東軍의 가장 큰 脆弱點이었던 東歐 主力軍과의 相互連結 制限이 第2 「시베리아」鐵道가 (一名 BAM 鐵道) 建設됨으로서 解決될 展望이 있다는 것은 刮目할 만 한 事態變化가 아닐 수 없다. 第2 鐵道가 갖는 軍事的 價値는 매우 커서 中共뿐 만 아니라 東北亞 全體에 對한 勢力均衡에도 새로운 不安要因으로 評價된다.

소련은 極東軍의 生命線인 現「시베리아」鐵道가 中·蘇國境에 接近(最短 2 km) 되어 있어 軍事的으로 극히 脆弱할 뿐만 아니라 제 2 철도가 완공될때 西部 소련에서 極東地域으로의 輸送補給能力이 大幅 增加되어 極東軍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sup>29)</sup> 또 이철도 沿邊에 機械 및 化學工場地帶의 造成과 人口移住가 可能하여 一旦 有事時 極東軍의 人的, 物的 動員基地로서의 役割까지 할 수 있게된다.

最近에는 極東地域에 陸海空軍의 裝備改善과 함께 「게릴라」作戰用 특수목적부대인 「스페츠나츠」<sup>30)</sup> 를 배치하여 多目的 軍事能力을 擴大시키고 있다.<sup>31)</sup>

29) 제 2 시베리아 철도는 74년 5월 착공하여 85년 완공예정으로 「바이칼」湖水北方의 「레나」를 起點으로 하여 「아르르」강 유역의 요충지인 「콤스몰스코」까지 全長 3,140 km인데 이 철도의 能力에 對한 日本 防衛廳의 分析은 이 철도가 사용하게 될 貨車는 一輛의 積載量이 125ton 級의 초대형이므로 한 貨物列車가 50輛일때 一時에 6,000ton의 物量을 수송할수가 있어 기존철도와 합하면 2개사단 兵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30) 소련의 「스페츠나츠」(SPETSNAE)의 총병력은 15,000 名으로 동독, 체코, 헝거리등에 배치되어 암살, 납치, 서방군사기지 파괴, 폭파등의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이다.

31) 讀賣新聞, 1984.3.20 字

## 제 3 장 周邊國家의 對應政策 : 反蘇聯合體제의 構築

### 第 1 節 反蘇聯合體제의 形成背景

80年代 東北亞情勢의 특징은 70年代의 「데탕트」 構造가 再編成되는 과정에서 新冷戰的인 狀況이 展開되고 있고 美國과 蘇聯의 超강대국을 비롯한 日本·中共등 세계의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이러한 情勢속에서 美·蘇의 對決은 더욱 심화되어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과 북한, 베트남, 아프카니스탄을 잇는 南·北連結軸을 形成하려는데 반해 美國은 日本과 中共을 잇는 東·西連結軸을 形成하여 反蘇聯合體제를 構築하려 하고 있다.

美國이 東北亞에서 反蘇聯合體제를 構築하려는 背景으로서는

첫째, 美國이 70年代 추진한 「데탕트」 政策이 結果적으로 蘇聯의 軍事力 增強 및 膨脹政策의 活路만 터주었으며 相對적으로 美軍事力の 弱화와 公信力の 下落만을 招來하였다는 狀況이 크게 作用하고 있으며,

둘째, 亞細亞에서 美國의 지배적 영향권(Pax Americana)이 弱化되는 반면에 이에따른 힘의 空白을 파고들려는 蘇聯의 影響力 擴大 및 南進政策이 美國 및 亞細亞 諸國家들에서 共通된 威脅이 되었다. 즉 ① 蘇聯이 極東地域에서의 대규모 군사시설 및 군사력 增強 ② 「베트남」의 「다낭」 및 「캄란」에 蘇聯基地의 확장 ③ 「아프카니스탄」 등 第3世界에 대한 무력侵攻 및 共產化戰略으로 蘇聯의 勢力擴大등이다.

셋째, 蘇聯의 東北亞進出 및 南進政策을 日本과 中共을 이용하여 견제하려는 美國의 “Y”字型 二重抑制裝置의 構想등이 美·日·中에 의한 反蘇聯合體제의 構築을 形成하는 背景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美·日·中共이 政治的, 軍事的 次元에서 協力體제를 構築하므로써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에서 蘇聯의 膨脹과 南進을 견제하려는 것이다.<sup>32)</sup>

32) 徐鎭英, “南北韓關係의 過去와 現在” 「平和統一」, (1983. 특집 2호), p.53.

이러한 美國의 構想은 日本과 中共의 새로운 政權이 이에 비교적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면서 가장 現實的인 對蘇 對應,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데 日本의 「나카소네」 政權은 過去 어느때 보다도 對美, 對中共 協力を 강조하고 있고 中共도 鄧小平體制가 등장하면서 西方과의 協力を 통한 4개의 現代化計劃을 실현하고 對蘇 安保體制를 構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日·中共의 協力體制를 構想하고 있는 美國이 東北亞 및 環太平洋 地域에서 假想하고 있는 여섯가지 緊急事態를 보면 이런體制의 形成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sup>33)</sup>

첫째, 美國이 主要基地를 喪失할 경우로서 日本內 美軍基地를 喪失할 경우 周邊 地域은 蘇聯의 支配下에 들어 갈 것이며 「필리핀」의 「수빅」 基地에서 美軍이 撤收할 경우 美·蘇間의 均衡은 더 남쪽에서 전복 될 우려가 있다.

둘째, 蘇聯이 前進基地를 獲得할 경우 東北亞 全域이 蘇聯軍의 活動範圍에 포함 될 것이다.

셋째, 中·蘇가 和解할 경우 亞細亞에서의 美·蘇均衡측에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될 것이다.

넷째, 中·蘇가 衝突 할 경우 戰爭은 擴大되고 東北亞의 勢力均衡은 새로운 型態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美太平洋軍이 「NATO」를 支援할 경우 「스윙」戰略이 변경으로 새로운 「1.5」 또는 「2」戰略이 構想될 것이다.

여섯째, 韓國에서 紛爭이 발생할 경우 美軍戰力이 상당부분 묶이게 되어 타지역에 對한 對蘇 對應策이 弱화될 것이다. 이런 見解에서 美國은 東北亞에서 日本과 中共을 利用한 安保분담 政策으로 對蘇優位와 抑制戰力を 形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1978年 日·中共平和友好條約의 체결과 1979年 美·中共國交正常化를 계기로 三國協力에 의한 反蘇戰略背景을 갖고 있다.

33) John. M. Collins, U.S. - Soviet Military Balance: Concepts and Capabilities 1960 ~ 1980. (Newyork: McGraw. Hill Co, 1980), pp.360 ~ 363. 崔榮, 「變遷하는 蘇聯의 軍事戰略과 東北亞地域의 安保維持에 관한 研究」 (서울: 外務部 外交安保 研究院, 1980), pp.26 ~ 30에서 재인용.

## 第 2 節 反蘇體制國家의 東北亞政策과 反蘇對應能力

### 1. 美 國

美國이 東北亞에서 갖는 政策背景은<sup>34)</sup>

첫째, 蘇聯極東軍事力の 大幅的인 增強

둘째, 駐韓美軍의 撤收問題와 北韓의 對南強硬路線 堅持로 因한 韓半島에서의 不安要因 增大

셋째, 亞細亞에서 계속적인 影響力 유지를 위해 美·日·中·蘇四強의 軍事力均 衡에 依한 現狀維持政策의 追求

넷째, 美國의 계속적인 經濟的 利益維持등으로 現在 급속한 經濟成長을 하고 있는 太平洋地域國家들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을 爲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美國은 蘇聯의 極東軍事力에 對한 對應勢力을 增強시키고 中·蘇紛爭을 利用하여 中共을 反蘇親美化시켜 反蘇聯合勢力으로 그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즉 美·中共은 1979 年 國文正常化 以後 「和解」(détente)에서 「協力」(entente), 「協力」에서 「同盟」(alliance)으로 發展하는 連續線的 背景에서 安保協力の 可能性도 띠고 있다.

美國이 對中共 安保協力에서 갖는 利益으로는 ① 美·中共外交正常化에 많은 影響을 미친 中共의 軍部와 連累할 수 있고 ② 中共의 軍事力強化로 中·蘇國境에 駐屯하고 있는 蘇聯軍의 增強을 강요하여 「NATO」駐屯 蘇聯軍을 弱화시킬 수 있으며 ③ 極東에서 對蘇防衛力을 분담할 수 있다.

또한 日本에 對해서는 安保維帶를 強化하므로서 日本의 防衛力에 의한 極東의 平和와 安定을 確保케 하여 美·日間의 適切한 役割分擔을 하는 것이다. 또 日本의 憲法을 改定케 하여 日本領域이나 周邊海域과 空域을 日本自體에서 防衛하게 하

34) 申仁燮, “80 年代의 四強關係와 韓國의 安保”(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2), p.20.



따라서 駐日 美軍의 財政的 負擔을 輕減시키고자 한다.<sup>35)</sup>

美國은 日本에 對해 防衛費 增強을 GNP 1%以上으로 要求하고 있는데 日本이 構想하고 있는 「防衛計劃의 大綱」을 比較하면 <表 3>과 같다.

<表 3> 美側要請安과 日側 大綱의 比較<sup>36)</sup>

防 衛 力	美 國 安	日本防衛大綱
「미사일」護衛艦	70 척	60 척
潛水艦	25척	16 척
對潛哨械機	125 대	100 대
전 폭 기	350 대	250 대
전 투 기	200 대	100 대
조 기 경 계 기	20 대	10 대
수 송 기	60 대	40 대
地對空「미사일」	「페도리오스도」구입	6個 高射群
彈藥備蓄	60~90 일본	30 일본

美國은 「레이건」 行政府 以後 積極적인 對韓半島政策을 시도하고 있는데 韓半島에서 美國의 利益을 나열하면<sup>37)</sup>

첫째, 蘇聯의 南進政策을 抑制시킬 수 있는 地政學的 位置로 亞細亞에서 勢力均衡이 要衡地가 된다.

둘째, 日本의 確保를 爲한 軍事戰略的 前哨基地인데 美國은 亞細亞에서 日本과 의 現狀維持가 가장 本質的인 國家利益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韓半島는 中共과 蘇聯에 接近할 수 있는 亞細亞·太平洋國家로서의 外交戰略的 前哨基地 役割을 한다.

넷째, 韓國은 美國의 經濟對象國으로서의 利益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對韓半島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美國은 駐韓美軍을 계속 駐屯시키면서 韓

35) 西脇文昭, “日本の防衛力 增強” 「世界週報」 (1981.7), p.12.

36) 上掲書, p.14.

37) 李茂雄, 前掲書, pp.51 ~ 52.

國軍의 戰力增強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즉 南北韓의 軍事力均衡에서 韓國軍이 열세에 있는 戰力を 補充하며<sup>38)</sup> 北韓의 南侵을 抑制시키고 있다.

특히 1983年 11月 「레이건」 美大統領이 韓國을 訪問하여 「韓國의 安全이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에 主軸(pivotal)이 되며 나아가 美國의 安全에 直結됨(vital)을 有意하면서 韓國의 安全을 爲한 美國의 계속적이고 強力한 支援」을 再確認하므로서 「닉슨독트린」이나 「카아터」 行政府 以後 美國이 韓國에 對한 重要한 政策變化를 意味한다.<sup>39)</sup>

美國이 東北亞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軍事戰略으로 85年 美國防省 國防報告書에 의하면 從前의 「스윙」 戰略이 수정으로 「同時多發戰」<sup>40)</sup>과 「核報後戰略」을 채택하여 蘇聯의 軍事的 도발에 대처하고 있다. 이는 蘇聯이 「유럽」, 中東 및 亞細亞에서 同時多發戰에 美軍이 同時에 對應하기 위한 戰略이라 볼 수 있다.

美國이 西太平洋에 보유하고 있는 軍事能力은 <表 4>와 같다.

<表 4> 美國의 極東軍事力

總兵力: 145,914 名
陸軍: 47,714 名 (駐韓: 27,633 名)
海軍: 43,300 名 (第七艦隊: 3,300 名)
海兵: 25,100 名 (駐日: 21,800 名)
空軍: 29,800 名 (駐韓: 9,900 名)

38) 美國은 韓國軍의 열세에 있는 航空戰力, 對潛能力, 對戰車能을 보충하기 위해 4개의 전폭기대대와 제 7 함대중 1개 함모전단 그리고 1개 보병사단을 배치 및 전개시키고 있다.

39) 中央日報, 1983.11.14 字

40) 「同時多發戰略」은 2단계로서 1단계는 NATO軍과 主한미군등 前進配置軍 및 同盟國軍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축물자를 확대하여 유사시 상당기간의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2단계는 미국의 본토에서 증원군을 파견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는데 증원군의 파견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신속배치군」을 설치하고 있으며 유럽, 서남아, 한국등에 육군의 중장비 및 탄약, 항공기 등을 사전에 비축, 배치하고 유사시 병력을 긴급수송하는 전략이다.

區 分	兵 力 및 裝 備
地 上 軍	駐韓：1 個 보병사단(제 2 보병사) 1 個 방공포여단 駐日：제 1 해병사단 駐하와이：1 個 보병사단(제 25 보병사단)
海 軍	航空母艦：3 隻 순양함：5 隻 구축함, 프리깃드함：18 ~ 20 隻 잠수함：11 척 상륙함：3 ~ 5 隻 항공기：280 臺
空 軍	4 個 전폭비행단 1 個 폭격비행단 作戰機：260 臺
核 戰 力	퍼싱Ⅱ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出處：The Military Balance, 1983~84, IISS.  
NAVY International, 1983.11. Vol.88. No.11.

## 2. 日 本

日本이 東北亞에서 蘇聯軍에 對應하기 위한 對外政策으로는<sup>41)</sup>

첫째, 美國의 核保護아래서 계속 安保유대를 강화하고 점차 自體防衛力을 增強시켜 나간다.

둘째, 紛爭計劃 回避를 위한 強大國과의 等距離外交를 展開한다.

셋째, 中共의 4 個 現代化計劃에 적극 참여하고 蘇聯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시베리아」開發에 資本과 技術을 提供하여 直接的인 對決을 회피한다는 것으로서 漸進的으로는 國防費의 支出을 增大하여 「防衛計劃의 大綱」을 達成하려 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蘇聯의 極東軍事力의 直接的인 威脅을 받고 있는데 蘇聯의 군사적

41) 申仁燮, 前揭論文. p.27.

시위 및 해상 수송로의 안보에 대응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또한 亞細亞에서 自國의 影響力擴大를 꾀하면서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는 現狀 維持政策을 追求하여 南北韓 政府와 等距離外交를 추진하고 있다.

日本의 國防戰略으로는 「侵略에의 對處」라는 2 가지 則面에서 모색되고 있는데 軍事政策의 골자로서는

- ① 美國의 核武器에 依存
- ② 專守防衛體制 維持
- ③ 限定的인 소규모 기습침략에 對하여 즉응하는 대처능력 확보
- ④ 非核 3原則 고수
- ⑤ 雙圓的 自衛權 行事的 불허
- ⑥ 해외과병 금지
- ⑦ 징병제 불실시
- ⑧ 武器輸出의 3原則
- ⑨ 軍事戰略, 戰術이 계속적인 연구추진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같은 軍事政策에 의한 戰略을 要約하면<sup>42)</sup>

첫째, 專守防衛戰略으로서 相對國의 基地 및 領土를 攻擊하지 않고 自國의 防衛에만 전념하는 개념이다.

둘째, 限定的인 소규모 기습침략에 對한 즉응태세 전략으로 日本領域에 한정된 통상적 전략으로 美軍이 支援하기전 까지 自國의 軍事力으로 對處한다는 것이다.

셋째, 美國과의 軍事協力體制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侵略이 미연방지태세의 확립과 공동 對處行動의 確保이다.

現在 日本의 軍事能力은 自體防衛만을 目標로 하는 自衛隊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現況은 <表 5>와 같다.

---

42) 崔敬洛, “日本의 軍事力과 韓半島” 「自由公論」, (1983.7), pp.64 ~ 65.

〈表 5〉 日本의 軍事力

(1983 年度)

人 口 : 119,400,000 名 兵 力 : 241,000 名 GNP : 1,057 억불(1982 年) 國防費 : 10.36 억불( " )	
區 分	兵 力 및 裝 備
陸 上 自 衛 隊	兵力 : 156,000 名 戰車 1,040      장갑차 560      자주화포 220 작전용 항공기 370      SAM 8 群
海 上 自 衛 隊	兵力 : 42,000 名 艦隊 : 160 隻 對潛水上艦 : 53 隻 潛 水 艦 : 14 隻 기      타 : 90 隻 航 空 機 : 160 臺
航 空 自 衛 隊	兵力 : 43,000 名 작전용 항공기 : 310 대 전투기 250 대      정찰기 10 대      수송기 40 대 SAM : 6 群
예      비	41,000 名

出處 : The Military Balance 1983~84. IISS

### 3. 中 共

中共이 對外政策의 基調는

첫째, 帝國主義, 霸權主義, 植民主義 그리고 人種主義를 反對한다.

둘째, 世界 各國과의 關係維持 및 經濟·文化의 交流를 擴大한다.

셋째, 無產階級의 國際主義路線을 堅持한다.

넷째, 被壓迫民族의 解放과 新獨立國家의 建設을 支持한다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中共이 對外政策의 基調에서 對東北亞 政策目標은 反蘇統一戰線을 構築 하므로써 國家安保를 確立하고 四個의 現代化 計劃<sup>44)</sup>을 推進하기 위해 美·日과 의 協助體制를 強化하면서 東北亞의 勢力均衡과 現狀維持를 侈하고 있다.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는 北韓을 支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韓國과는 아직 政治的인 交流는 안되고 있으나 「스포츠」 및 文化, 經濟交易 등의 非政治的 次元에서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美·日·中共의 關係개선으로 協力體制가 擴大될 경우 美·日과 友邦關係에 있는 韓國과의 政治的 關係改善은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지만 北韓을 意識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획기적인 政策變化는 가져 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中共이 예상되는 對韓半島 政策目標은

① 中共은 北韓과 체결한 軍事同盟을 基調로 「두개의 韓國」 또는 韓國을 中立的 緩衝地帶化하여 影響力을 증대하려 하고

② 對日本政策에서 韓半島를 防衛據點으로 삼으려 하며

③ 北韓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韓國과의 直接的인 交統 擴大를 실시하여 自國의 役割을 增大하려 할것이다.

또한 中共은 四個 現代化 計劃의 일환으로 國防의 現代化를 내세우고 質的으로 뒤져 있는 裝備의 現代化는 물론 戰略, 戰術, 教育, 훈련 통신체계 및 후방지원등 전문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中·蘇國境地帶에 配置된 蘇聯의 地上軍과 核戰力 그리고 「베트남」 基地에 增強되고 있는 極東艦隊등은 中共이 對蘇防禦戰力의 증강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最近 中共은 攻擊能力을 強化하기 위해 戰略核미사일부대를 창설했으며<sup>45)</sup> 張愛評中共 國防部長이 美國을 訪問하여 美國의 武器 및 技術을 도입하기로 하므로써 美·中共間의 軍事協力時代를 時作했다.

現在 中共의 軍事力 現況은 <表 6>과 같다.

43) 上揭書, p.71.

44) 中共의 4個 現代化 計劃은 ①工業 ②農業 ③科學技術 ④國防의 發展計劃을 말한다.

45) 中央日報, 1984.6.12字

〈表 6〉 中共의 軍事力 現況

(1983년 현재)

區 分		兵 力 및 裝 備
戰略軍	攻擊戰力	CSS-1 MRBM : 90 기      CSS-4 ICBM : 4 기 CSS-2 IRBM : 50 기      Tu-4, B-5, B-6 : 80 대 CSS-3 ICBM : 50 기      SSN : 1 척
	防禦戰力	전투기 : 4,000 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 다수 SAM : 100 기 고사포 : 16,000 문
在來軍	地 上 軍	兵力 : 315 만명 (중·소국경 : 844,800 명) 야전군 42 개 집단 지방군 97 개 사단
	海 軍	兵力 : 360,000 명 함 정 : 2,650 척 (잠수함 100 척) 항공기 : 800 대
	空 軍	兵力 : 490,000 명 항공기 : 5,300 대
	準軍事部隊	兵力 : 1,200 만명

出處 : The Military Balance 1983~84, IISS

### 第 3 節 反蘇體制的 問題點

極東에서 蘇聯軍의 팽창전략에 對해 美國은 日本과 中共을 聯合한 反蘇協力體制를 形成하여 「알라스카」에서 「알류산」 烈島를 거쳐 日本을 잇고 中· 蘇國境에서 日本을 이어 韓國과 東南亞를 거쳐 인도양의 「디에즈 카르시아」를 잇는 東西軸의 戰略망을 구축하여 蘇聯의 南進政策을 封鎖하려 하고 있다. 蘇聯의 極東軍事力에 대처하려는 3國의 軍事對應策을 評價하면 美國은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海·空軍戰力增強의 새로운 戰略을 수립하여 最新銳 戰爆機 및 艦艇을 配置하

여 制空·制海權의 確保를 企圖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제 7 함대를 質·量的으로 增強시키고 있다.

또한 美國은 日本의 防衛費增額을 계속 要求할 것이며 中共에 對한 군사력 증강에도 협조할 것이다.

日本은 政府에서 禁忌視해 오던 防衛問題를 輿論化하고 있으며 國民的 合意의 方向으로 誘導하고 있다. 防衛構想도 專守防衛에서 地域防衛概念으로 轉換하여 美國과의 軍事協力強化, 防衛力整備計劃의 持續的인 推進을 꾀하고 있으며 北海島 및 東北地方에 軍事力을 重點配置 하고 있다. 自衛隊에 對한 「防衛計劃의 大綱」이 완료되면 自國이 공격에 對한 拒否能力은 어느정도 保有하게 될 것이다.

中共은 軍裝備의 落後와 蘇聯의 威脅增大에 따른 獨自的인 軍 現代化 계획의 推進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第二擊能力強化, 防空體制 完成, 裝備의 現代化와 軍의 訓練을 강화하며 美國등 西方으로부터 國防科學技術導入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戰略核「미사일」部隊를 창설하여 北方으로의 蘇聯軍威脅에 對應하고 있다.

이와같은 各國의 立場으로 말미암아 反蘇協力體制는 自國의 安保威脅에 對應하려는 의도에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形成되고 있는데 自國의 安全과 利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이들國家의 결속은 계속될 것이며 軍事力增強에도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美·日·中共의 反蘇體制는 과연 견고한 상태인가? 美國이 中心이 되어 구축되어온 反蘇體制는 과연 日本과 中共이 美國과 같은 立場, 다시말해서 冷戰體制下에서의 陣營間의 結束처럼 단단한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많다. 中共의 이른바 「實用主義路線」은 결코 共產主義抱棄宣言이 아니다. 「先近代化 後革命推進」의 宣言일뿐이다. 共產主義國家인 中共과 美·日은 어느 정도까지 政治的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理念을 같이 하지 않은 두 나라가 어디까지 政治적으로 密着할 수 있겠는가?

中共의 「實用主義」는 美國과 똑같은 理由에서 反蘇立場을 견지하고 있지 않다. 中共은 지금 蘇聯의 군사적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美·日과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中共은 점차적으로 蘇聯과의 관계개선도 시도



해 나갈려고 하는 것 같다. 지난 5월 레이건 美大統領이 中共을 방문한 경우 레이건대통령은 中共이 指導者들에게 東北亞에서의 蘇聯의 위협에 대처하는 反蘇軸 구축문제를 많이 제기했으나 中共의 지도자들은 가급적 소련을 자극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주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美·中共과의 경제 확대문제에만 협의를 하고 말했다. 이는 中共이 점차적으로 소련과의 양땅뜨까지는 몰라도 데땅뜨關係까지는 갈려고 하는 것 같다.

日本 역시 蘇聯과의 관계를 冷戰時代로만 끌고 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美國과 軸을 같이 하면서도 日本은 경제적·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日本의 국가이익에 하등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蘇聯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中共과 日本의 立場을 보건데 美·日·中共의 反蘇聯合體制는 그 포위망이 단단하고 견고하다기 보다는 느슨한(loose)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 제 4 章 蘇聯의 極東軍事力과 韓國의 安保

### 第 1 節 韓國의 安保와 國際關係

#### 1. 韓半島의 地政學的 特殊性

韓國의 安保環境을 分析하려면 먼저 韓半島가 갖는 地政學的 特殊性을 考察하지 않을 수 없는데 韓國의 경우 地理的 條件의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의 地理的 環境의 特殊性을 地政學上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첫째는 韓半島가 <邊境地帶의 位置에 있는 나라>(rim-land Country)라는 環境이다. 韓半島는 滿州와는 鴨綠江과 豆滿江을 接境으로 8백餘마일, 「러시아」와는 「블라디보스톡」을 沿岸으로 11 마일로서 中國과 「러시아」의 大陸의 影響을 받아왔다.

둘째는 <橋樑國家>(bridge country)라는 性格이다. 주로 19世紀, 20世紀初에 日本의 大陸侵略政策으로 滿州로 向할때, 「러시아」가 南下政策으로 滿州와 韓半島를 거쳐 日本과 太平洋으로 進出하려 할때 그들은 韓半島를 발판으로 삼았으며 中國도 東漸擴大로 나갈때 韓半島를 利用했다. 露·日戰爭이나 靑·日戰爭등도 韓半島의 地理的 位置가 橋樑國家라는 性格에서 利用당했다.

셋째는 <緩衝國>(Buffer state)이라는 環境이다. 韓半島는 歷史上 周邊勢力(러시아·中國·日本) 들간의 緩衝地域이 되어 왔으며 戰後 현재까지 美·蘇·中共·日本등 4大強國의 勢力相衝地域이 되고 있다. 특히 軍事的 勢力相衝地域이 되어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韓半島의 地政學的 環境은 現段階에서 緩衝國의 位置의 性格이 제일 크고, 그다음 邊境地帶의 環境의 影響이 尙存하고 있으며 橋樑國家로서의 性格은 稀薄해 졌다고 볼 수 있다.

46) 申喆均, “韓半島의 周邊情勢”(研修教材, 國土統一院統一研修所, 1981),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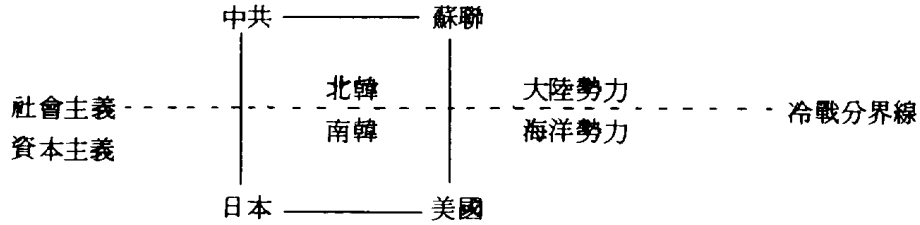
## 2. 國際關係의 與件

세계의 4대강국을 周邊에 두고 있는 한반도의 國際的 關係에서 그 本質은 모두가 自國의 國家利益을 追求함에 있고 國家利益의 追求는 國際關係 또는 國際政治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러한 狀況에서 특히 國力培養과 外交資源의 효율화를 통한 國際的 協力體制의 確保가 必要한데, 특히 重要한 것들은 첫째로 國際環境에 對한 기민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며, 둘째 國際關係의 바탕은 自國의 利益追求이고, 셋째, 戰後 國際政治趨勢가 政治理念的 定向에서 實利追求的 定向으로 기울어졌고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變化되었다. 넷째, 이와 같은 國際政治의 性格的 變化에 適應하여 우리의 安保對策을 우리가 願하는 방향으로 追求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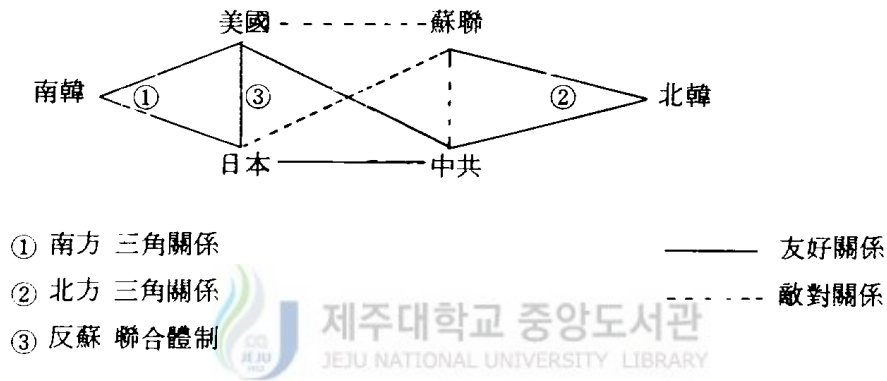
韓半島를 周邊으로 한 四強의 變化는 中共의 成長 및 中·蘇紛爭에 의한 共產指導體制의 兩分으로 美·中·蘇 三角體制를 形成하는 決定的인 要素가 되었으며 80年代에 들어서 日本의 역할증대로 인한 地位向上과 蘇聯은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와 미국에 앞서게 되었다. 이제 東北亞에서 과거 美·蘇間의 勢力均衡이 깨어지면서 이에 대처하려는 美國의 日·中共에 의한 反蘇協力體制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韓半島는 세계의 四強들의 競爭場所로 露出되어 있는 實情이며 이런 韓半島의 中央的 역할은 1945年 이미 한국분단의 結果를 낳았으며 強大國들은 自國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自己則 政府를 세우는데 힘썼던 것이다.

韓半島에 南北韓과 四強과의 關係를 보면 <圖2>와 같이 社會主義 國家들이면서 大陸勢力인 中·蘇가 北韓과 함께 北方三角關係를 形成하고 있고 資本主義國家이면서 海洋勢力인 美·日이 韓國과 함께 南方三角關係를 形成하고 있으면서 80年代 情勢變動으로 美·日·中共에 의한 反蘇聯合體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圖3 참조>

〈圖 2〉 韓半島와 四強의 關係



〈圖 3〉 四強關係의 變化와 南北韓



第 2 節：蘇聯極東軍의 增強과 韓國의 安保

蘇聯이 極東地域에서 軍事力을 大幅 增強시키므로서 北太平洋과 東海 및 東·南支那海와 印度洋에 걸쳐 東·西軍事力均衡을 파괴시키는 直接的인 動因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極東을 포함한 亞細亞 全般에 걸친 諸國家들에게 深刻한 安保上의 威脅要素가 되고 있어 그 對策이 요구되고 있다.

蘇聯 極東軍의 目標은 中共, 日本, 美國에 對한 軍事的 威脅이며 도전이지만 그것은 나아가 韓國과 亞細亞·太平洋國家들에 對한 威脅이 되는 것이다. 특히 韓國의 경우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強은 北韓의 背後支援國의 隣近 配備軍事力의 增強을 意味하며 또한 韓國의 支援友邦인 美·日등의 行動制約을 招來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直接 韓國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韓國의 安保에 間接的인 重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至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蘇聯의 極東軍事力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蘇聯의 極東軍力增強은 軍事援助의 大部分을 蘇聯에 依存하고 있는 北韓을 자극하게 되어 對南武力攻擊을 決意하게 할 可能性이 클 뿐만 아니라 美·日·中共의 反蘇協力體制가 결속되었을 때 北韓을 利用한 對南侵略을 감행하여 代理戰을 誘導하므로써 韓半島를 衛星化하려 할 것이다.

둘째 極東에서의 軍事力均衡을 파괴하므로써 美國의 對韓 軍事支援에 큰 制約을 加하게 되므로 有事時 美國의 對韓支援이 消極化되고 非效率化 될 可能性이 크다 특히 對韓 海上交通路가 威脅을 받게되어 韓國에서의 軍事作戰에 차질이 초래 될 것이다.

셋째 亞細亞에 對한 威脅增強으로 亞細亞諸國들이 對蘇威脅 認識高潮로 有事時 駐屯地 美軍基地 使用에 어떤 어려움이 초래 될 수 있다.

네째, 韓半島 周邊海域에서 美·日·中·蘇間의 軍事的摩擦이 생길 可能性이 많으며 그 경우 韓國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大韓海峽은 蘇聯 太平洋艦隊의 隘路點(chok point)이 되고 있어 東支那海의 戰略的 價値가 提高되고 있기 때문에 有事時 이곳에서 摩擦可能性은 크다.

다섯째 蘇聯 太平洋艦隊는 東海를 戰略作戰海域으로 하고 있어 必要時 一切 統制하려 할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蘇聯 太平洋艦隊는 極東諸國의 海上交通路를 遮斷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어 무역항로 및 유류수송 등에 威脅이 된다.

따라서 蘇聯의 軍事力增強과 관련하여 蘇聯이 韓國에 加할 수 있는 威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直接的인 威脅

### 가. 海域對鎖

蘇聯의 極東軍事力中에서도 가장 증강된 것이 太平洋艦隊로서 東海를 그들의 戰

略作戰海域으로 삼고 活動하고 있으며 母基地인 「블라디보스톡」에서 太平洋 및 南支那海로 진출하는 통로로서 戰平時 韓國의 安保에 가장 直接的인 威脅이 되고 있다. 韓國의 東海 및 南海에서의 蘇聯軍事力の 活動은 韓國의 海·空軍의 活動을 制約하고 있고 有事時 韓半島 全海岸을 封鎖하여 內陸에 敵對集團을 두고 있는 韓國이 섬같은 환경에 포위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友邦國들의 對韓援助에 決定的인 타격요소가 되어 戰爭등의 樣相은 아주 달라지게 할 요소가 된다.

소련은 현재 美國의 제 7 함대에 의해서만 行動의 制約을 받을 뿐 그외에는 어떠한 國家도 대항하지 못하는 막강한 艦隊를 保有하고 있는데 그들의 攻擊潛水艦隊는 극히 制限된 韓國海軍의 對潛能力을 고려할 때 韓國의 海岸 및 海外航路를 恒時 遮斷할 수 있는 能力은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소련이 이런 韓國海岸封鎖能力은 韓國에 加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威脅的인 軍事能力으로 보유중인 潛水艦의  $\frac{1}{10}$ 만 活用해도 된다.

平時에도 그러한 威脅은 存在하는데 韓國은 總 GNP의 약  $\frac{1}{10}$ 을 海外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천연자원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자원인 油類등을 全量 外國으로부터 輸送해 要하는 海外依存도가 높은 韓國으로서는 經濟뿐만 아닌 社會, 外交등 전분야에 걸쳐 重大한 威脅要素가 된다.

#### 나. 直接攻擊

蘇聯은 美國이 韓國에서 갖는 利益이나 美國政府의 韓國에 대한 安保上の 동반자적 입장, 그리고 그 동안의 韓·美關係등을 고려할 때 韓國을 直接攻擊할 可能性은 희박하나 어떤 계기가 있어 主한미군을 철수하거나, 美·日·中共의 反蘇體制로부터 蘇聯이 威脅을 받을 때 이러한 國家들에게 分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가 韓國을 直接 攻擊하여 第2의 「아프카니스탄」化 하는 것이다.<sup>48)</sup> 즉 蘇聯이 全韓半島에 獨占的 支配權을 確保한다면 蘇聯은 太平洋으로의 完全한 關門을 確保하게 될 뿐 아니라 美·日·中共이 橫的인 紐帶를 縱的으로 遮斷할 수 있는 位置에 있게 되

47)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Ⅱ” (서울: 考試研究社, 1980), p.226.

48) 上揭書, p.226.

기 때문이다. 이는 83年 9월에 있었던 極東 空軍이 「KAL」機를 擊墜시킨 것도 蘇聯이 韓國에 對한 直接攻擊의 一部로 볼 수 있다.

現在 蘇聯은 「블라디보스톡」 주변에만 19개 사단을 포진하고 있고 戰略核미사일의 약 30%에 해당하는 「ICBM」 및 「SLBM」은 거의가 韓國의 全域以上을 射程距離에 두고 있으며 沿海洲에서 發進하는 대부분의 爆擊機들도 韓國을 行動半徑內에 두고 있어 韓國에 對한 蘇聯의 直接攻擊은 必要時 언제든지 可能하다. 또한 東·南海上에는 「SLBM」은 물론 各種 탑재기를 적재한 太平洋艦隊가 韓國의 全領土를 유린할 수 있는데 現在 韓國이 保有중인 軍事力으로서는 事實상 防禦가 不可能하다.

## 2. 北韓에 의한 代理戰爭

極東地域에서 蘇聯軍事力の 增強은 蘇聯과 利益을 같이하는 北韓이 支援力量的 增大를 意味한다. 北韓은 中·蘇紛爭으로 外交的 困境을 당했지만 蘇聯軍의 增強이 中共등을 겨냥한데 主眼을 두었다해도 結果的으로 美太平洋戰力과 日本에 對敵한 多目的勢力이기 때문에 北韓에게 不利한 點은 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軍事的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蘇聯과 北韓은 그利益을 함께하고 있다.<sup>49)</sup>

첫째 朝·蘇友好條約의 繼續성과 함께 北韓이 中共偏向을 防止하려면 최신에 무기의 敵切한 供與國役割을 擔當할 수 밖에 없다.

둘째 北韓이 無謀한 戰爭挑發을 歡迎하지 않아도 決定的인 時期가 되었을 때 蘇聯은 傳統的인 南進政策의 일환으로 北韓을 支援하는 代理戰을 감행할 것이다.

셋째 東海를 蘇聯太平洋艦隊의 作戰海域化 하므로써 北韓의 對南活動을 有利하게 하고 國籍을 偽裝한 極東潛水艦이 北韓의 潛水艦과 聯合作戰을 전개한다면 韓國의 海岸封鎖에 決定的인 役割을 擔當할 것이다.

네째 將次 韓半島에서 武力衝突事態가 突發했을때 美軍主力部隊의 韓國支援이 本格化되면 “蘇聯의 極東軍도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는 對美 警告役割도 할 수

49) 裴名五, “80年代의 美·中·蘇關係가 韓半島에 미치는 軍事的 影響” 『國防研究』, 23卷 1號, (1980.6), p.27.

있다. 結局 美·蘇間의 接戰으로 擴大될 우려가 있어 美軍의 行動위축을 가져오고 나아가 韓國軍에 對한 抑制行動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北韓으로서는 대단한 戰略的 波及效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蘇聯의 極東軍事力은 韓·美軍事 作戰과 活動을 制約하여 北韓에게 間接的인 支援力量이 되며 情報제공등 直接的인 力量이 될 수 있다.

韓半島에서 蘇聯에 의한 代理戰 可能性은 먼저 東北亞에서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美·日·中共이 反蘇體制가 強化되어 이에 對해 蘇聯이 威脅을 느낄 때 그 突破口로서 韓半島에 對한 軍事的 冒險을 對象으로 하는 것인데 北韓에 의한 代理戰爭 (Proxy war)을 誘導하는 것이다. 이 경우 美國의 介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美國과 直接對決을 안해도 되므로 蘇聯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軍事冒險이 될 것이다.<sup>50)</sup>

또한 다른 樣相으로 北韓이 蘇聯에 對해 軍事的 支援을 要請하여 南侵을 試導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南北韓間의 격차가 심해져 北韓이 韓國보다 일부분에서 軍事的 우세가 무너질 경우 中共보다는 蘇聯에 밀착하여 戰爭物資의 支援을 획득하게 된다.<sup>51)</sup>

따라서 蘇聯은 北韓地域에 軍事基地를 설치하게 되고 「블라디보스톡」에 密集된 極東海軍의 疎散效果 및 不凍港의 獲得이라는 側面에서 큰 利益이 된다.

예컨대 1984년 6월 「金正日」 후계체제의 기반확보를 위해 蘇聯과 東歐를 訪問한 北韓의 「金日成」은 蘇聯의 「MIG-23」機 20-30機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對蘇武器確保를 추진하고 있다.<sup>52)</sup>

北韓은 계속하여 軍事力을 增強시키고 있는데 總군사력 78만 4천 5백명으로 推計人口 1천 8백 80만명의 4,17%로서 「이스라엘」의 4,19%와 함께 세계 최고의 人口對比 現역병력을 維持하고 있다. 또한 4백만의 準軍事力을 보유하여 총병력은 약 500만에 이르고 있어 人口 4명당 1명이 軍事要員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

50) 李相禹, 前揭書, p.227.

51) Hongkong, SAUD OBAINA MORNING POST, 1984.3.18.

52) 韓國, 中央日報, 1984.6.19.



은 「베트남」戰爭이 끝난 1975 年부터 現在까지 軍事力 強化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表 7> 과 같다.

<表 7> 北韓의 軍事力 增強實態

(1983.7.1. 現在)

구분 \ 년도		75	76	77	78	79	80	81	82	83
		총 병력	46.7	49.5	50	51.2	63.2	67.8	78.2	78.4
지상 장비	전차	1,130	1,350	1,950	2,100	2,300	2,650	2,650	2,825	2,825 대
	장갑차	200	200	750	800	800	1,000	1,000	1,140	1,140 대
합정총수		170	226	376	404	461	534	516	534	537 척
잠수함		8	8	10	15	15	16	19	19	21 척
항공기	전투기	588	600	630	655	565	615	700	700	740 대
	지원기	319	269	404	401	481	471	471	490	550 대

出處：內外通信，資料版，第 362 號，(1983.12.16)

특히 1978 年以後 南北韓 軍事力均衡에서 北韓이 優位를 確保하고 있으며 北韓은 南韓에 對한 60 일간의 全面戰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sup>53)</sup>

南北韓의 軍事力 現況은 <表 8> 과 같다.

<表 8> 南北韓 軍事力 現況

(1983 年度)

區 分		韓 國	北 韓
兵 力		正 規 軍：622,000 名 豫 備 軍：4,400,000 名	正 規 軍：784,500 名 準軍隊的民兵：1,798,000 名
兵 力		540,000 名	700,000 名
陸 隊	部	보병사단 20 개	보병사단 35 개
		기계화사단 1 개	기계화보병사단 3 개
		전차사단 없음	전차사단 3 개
		독립보병여단 2 개	방공포병사단 10-12 개
		기갑여단 2 개	특수군여단 26 개

53) 서울新聞；1983.6.17.

軍	裝 備	특수군여단	7개	독립경보사단	2개	
		전차	1,200대	중형전차	2,650대	
		박격포	5,300대	수륙양용차	100대	
		병력양육차	500대	장갑차	1,000대	
		H.J SSM	12	공격포	100대	
		Hel기	315대	야포	4,000대	
				다연장 로켓트	1,900계	
海	兵力	49,000名 (海兵 20,000名)		335,000名		
	基地	7개소		18개소		
軍	裝 備	전투용 함정	100척	전투용 함정	425-450대	
		구축함	11	호위구축함	4	
		호위구축함	8	초계함	33	
		고속정	49	미사일공격함	17-19	
		소외함	8	잠수함	21	
		상륙함	24	연안경비정	300	
		LVT	40	상륙용단정	94	
空	兵力	33,000名		51,000名		
	基地	젯트기용 비행장 12개소		젯트기용 비행장 20개소		
軍	裝 備	전투기 및 전폭기	300대	전투기 및 전폭기	610대	
		F-5	180	MIG-21	120	
		F-4	40	MIG-19	180	
		F-86	80	MIG-15/17	290	
		수송기	40	SU-7	20	
		Hel기	100	LI-28	90	
				수송기	250	
				헬기 65, 연습기	200	
防 空	裝 備	대공포	800	대공포	5,500	
		호크 미사일	80	SA-2 미사일	250	
		나이키 허클레스	40			

出處: The Military Balance 1983~84. IISS

## 제 5장 結論：對應策

지금까지 蘇聯의 極東政策과 이에 따른 軍事力 增強實態, 그리고 美·日·中共에 의한 反蘇協力體制의 構築과 이러한 要素들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 考察하였다.

本 論文은 蘇聯이 極東軍事力增強에 따른 諸與件下에서 韓國이 취해야 할 對應策을 模索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蘇聯은 極東地域에서 軍事力を 增強시키므로서 東北亞에서의 軍事的 勢力均衡을 무위화시키고 힘의 優位를 確保하여 이 地域에 대해 膨脹戰略에 의한 南進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60年代 中·蘇紛爭으로 增強되기 시작한 蘇聯의 極東軍事力은 80年代에 들어 全體蘇聯軍力에 있어 地上軍 25%, 海軍力 30-4%, 空軍力 25%, 核戰力이 30%를 차지하므로서 極東政策의 重要性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蘇聯은 極東軍事力과 함께 북한, 베트남, 아프카니스탄과 남예멘을 잇는 南·北軸을 形成하여 大陸 및 太平洋을 遮斷하려 하고 있으며 亞細亞諸國들에 對한 「핀란드」화를 誘導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美國은 蘇聯의 膨脹戰略을 견제하기 위해 中共과 日本에 의한 東·西防禦軸을 形成하여 反蘇協力體制를 構築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韓半島가 南北軸과 東西軸의 緩衝地帶의 役害을 해야하는 地政學的 特殊性 때문에 國際軍事環境에 對한 冷徹한 分析을 必要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北韓이 親蘇化될 樣相을 띠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北韓이 親中共政策을 취했을 때 비교적 안정이 지속됐으나 蘇聯偏向일때는 위험한 국면이 조성되어 왔다.<sup>54)</sup>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蘇聯의 極東軍事力과 이에 편승한 北韓의 安保의 威脅을 抑制하기 위한 우리의 政策은 <sup>55)</sup>

54) 金容顯, “北韓의 對蘇傾斜徵候와 軍事情勢: 소련의 極東武力強化를 中心으로” 「共產圈研究」, (1981.12), p.70.

55) 李相禹, 前揭書, p.228.

첫째, 美國의 對韓 核保護와 防衛公約을 確保해야 하며  
둘째, 韓·美·日 安保協力體制를 構築하여 地域的 防衛體制를 確保하고  
셋째, 韓國이 自體軍事力을 強化시켜 北韓의 單獨南侵을 防禦할 수 있고 蘇聯軍  
에 對한 最小限의 拒否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詳論하면 다음과 같다.

#### 1. 美國의 對韓安全保障 確保

韓國의 安保는 美國의 支援아래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世界四強의 緩衝地的 役割을 계속하는 한 美國이 對韓 安保政策은 韓國의 安保에 커다란 變數로 作用할 것이다.

즉 蘇聯에 비해 軍事力을 제외한 모든 分野에서 월등한 國力을 保有하고 있는 美國은 (클라인指數 1470:667) 西歐와 日本의 國力을 더하면 蘇聯을 압도하고도 남을 戰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韓國의 平和는 美國의 政策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sup>56)</sup>

따라서 韓國은 美國의 政策에 기여할 수 있는 政治, 外交, 軍事 및 經濟的 價値를 높여가면서 協力關係를 強化해야 한다. 韓國이 美國에게 주는 軍事的 기여도는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와 增強되는 戰力을 들 수 있는데 蘇聯이 極東軍事力 增強은 美國이 韓國에 對한 對蘇戰略 價値의 비중을 크게 하고 있다. 韓國이 美國에 對한 戰略的 價値로는<sup>57)</sup>

첫째, 韓國이 地理的 位置가 갖는 意味로서 蘇聯 太平洋艦隊의 進出路를 저지시킬 수 있는 장소이며 日本과 中共사이에 있어 反蘇聯合體制 構築時 軍事力 配置 및 연계가 적합하고 海·空軍作戰이 용이하다.

이점에 對해서는 만약 韓國이 蘇聯의 影響圈에 포함되고 釜山과 濟州가 蘇聯 太平洋艦隊의 基地가 된다고 想定해 보면 그 意味가 뚜렷해 진다.

둘째 韓國軍의 價値가 점차 重要해져 가고 있다. 美國은 現在 地上軍 19개 사단으로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 잘 훈련되고 名種裝備를 갖춘 韓國의 약 36개 사단규모의 地上軍共力은 美國에 있어서 소중한 戰力이 된다.

56) 李相禹, “韓半島平和 레이건 政策에 달렸다.” 朝鮮日報, 1983.11.13.

57) 李相禹, 前揭論文, pp.24 ~ 25.

특히 極東地域에 配置된 蘇聯의 39 개 사단(36 만명)에 對應戰力으로 韓國의 地上軍은 美國에게 必要한 戰力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駐韓美軍의 駐屯과 韓國軍의 現代化計劃은 當분간 계속 될 展望이다.

美國은 蘇聯의 極東戰力을 東海에서 遮斷하고 北韓의 軍事的 威脅을 저지하기 위해 每年 韓·美聯合訓練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4 년도 9 회를 맞는 「팀·스피리트 - 84」 ( team sprit tranig - 84 ) 訓練에는 14 만7 천명의 韓國軍과 6 만명의 美軍이 參與한 바 있다.<sup>58)</sup>

反面에 韓·美間에 相互補完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韓·美軍事戰略的 脆弱點으로 美國은 對韓 核保獲政策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韓國駐屯 美軍이 核戰力을 보충해야 한다.

韓國領土內에 核武器를 配置한다면 오히려 蘇聯軍의 攻擊目標가 될 수 있겠지만 攻擊拒否機能과 對北韓抑制役割을 同時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蘇聯이 攻擊을 감행하는 狀況은 世界大戰의 樣相을 띠게 될 것이므로 先制攻擊의 可能性은 희박하다.

셋째 現行 韓國軍事力의 制度的 취약점으로서 ① 軍事協力の 範圍가 狹小하며 制限的이어서 領土保全에 對한 條頂不在 및 條約이행에 따른 協議機構 規程이 안되어 있다. ② 韓·美聯合軍에 對한 指揮權이 美軍에 移讓되어 있어 美軍의 一方的인 戰略判斷에 따른 一方的인 作戰 및 決定을 制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國際情勢에 따른 四強의 關係가 不知不識間에 介入될 수 있다.

즉 美·中共關係에서 美國側이 中共에 對해 北韓에 政治的 壓力을 加할 수 있는 反面에 韓國問題에 對해서도 中共이 美國에 어떤 壓力을 加할 수도 있다.

58) 제 9 회 「팀스피리트」 - 84 한미군사연합훈련은 1984.2.1 ~ 4.26 까지 한국의 전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참가병력은 다음과 같다. ( )안은 83년도

○ 한국군 육군	: 102.6 천명	○ 미군 육군	: 20.9 천명
해군(해병)	: 19.7 "	해군	: 15.5 "
공군	: 25 "	공군	: 15 "
계	: 147 천명(118 천명)	해병대	: 8.6 "
		계	: 60 천명(70 천명)

全正煥, 「팀스피리트 - 84」 訓練의 意義 ” 戰友新聞, 1984.3.23.

## 2. 韓·美·日 安保協力體制의 構築

韓國이 立場에서는 韓·美間의 同盟關係와 美·日間의 安保의 協力關係를 連結하여 이를 수 있는 韓·美·日 安保協力關係(security cooperation)를 構築한다면 韓國의 安保와 東北亞의 平和를 確保하는데 強力한 힘이 될 것이다.

現在 韓·美相互條約과 美·日相互安保條約으로 連結되는 協力關係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韓·美·日 三角安保協力體制는 확실히 않지만 韓國이 對日軍事外交를 能動的으로 이끌어 간다면 展望可能性은 있다. 韓·日間의 關係는 經濟分野를 제외한 거의 모든분야에서 美國을 통한 中繼外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直接的인 韓·日軍事交流를 誘導함으로써 對蘇防禦의 共同目標을 갖게 되고 東海에서 活動中인 蘇聯太平洋艦隊의 海岸封鎖 및 海上路 威脅에 對處할 수 있는 抑制勢力이 된다.

日本은 蘇聯의 極東軍事力에 의한 威脅을 直接 받고 있으며 이에 對應하려는 美國의 노력과 함께 自衛隊의 增強을 계속하고 있는데 對韓安保協力에 있어서는 韓國보다 韓半島에서 얻는 利益을 고려하여 北韓과 中·蘇를 意識하여 단시일내 軍事協力關係는 그 展望이 밝지 못하다.

그러나 美國이 介入된 韓·美·日協力體制는 形成될 수 있으며 東·西軸安保體制에도 그 機能을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蘇聯極東軍이 갖는 戰略上의 制限要素를 살펴보면 韓·美·日安保體制의 構築은 蘇聯이 太平洋進出에 決定的인 打擊을 加할 수 있다.

極東地域 蘇聯軍이 戰略上 制限要素는

첫째 地上軍은 7천 2백 km의 中·蘇國境에 配置되고 있어 兵力移動과 兵站支援의 問題가 된다.

둘째 太平洋艦隊의 경우

① 「블라디보스톡」의 母基地는 狹小하여 勢力이 增加될 수록 밀집되어서 유사시 核攻擊에 의해 全滅될 위험성이 많은데 消散할 수 있는 장소는 東海밖에 없다.

② 地政學的 氣條的 問題로서 蘇聯艦隊가 太平洋으로 進出하려면 타다르, 소오야

(宗谷), 쓰가루(津輕), 쓰시마(對馬) 海峽中の 한곳을 통과해야 하는데<sup>59)</sup> 소오야海峽은 북쪽에 치우쳐 南進航路는 적당치 않고, 쓰가루海峽은 日本領海로 幅 25 km, 水深 150 M에 불과하여 機雷敷設이 容易하다. 쓰시마海峽은 大韓海峽과 함께 蘇聯極東艦隊의 가장 좋은 進出航路이나 韓·日領海를 제외한 31.5 km의 公海는 韓·美·日合同作戰時 封鎖될 可能性이 있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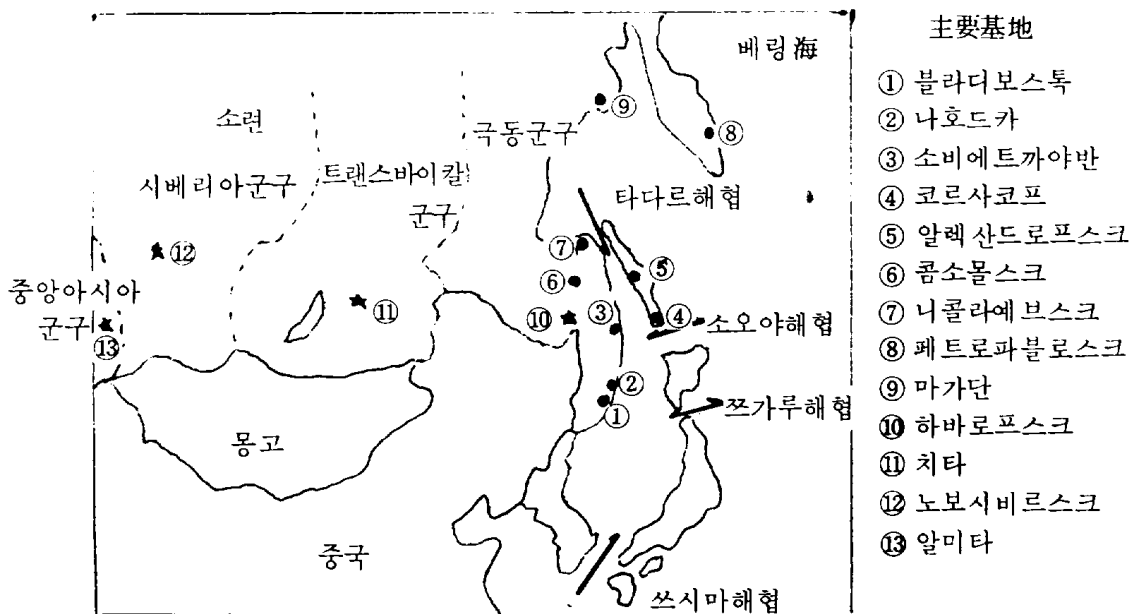
### 3. 軍事力 強化에 의한 拒否能力 確保

韓國에는 62 만의 韓國軍以外에 約 3 만의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데 蘇聯에 對한 拒否能力으로는 미약하고 다만 美軍自體가 駐屯하는데 拒否能力이 되고있다. 그러나 國際關係에 있어 各國은 自國의 國家利益을 최우선으로 追求하게 되므로 美國 역시 韓國에서 自國의 利益이 희박해 질 때 美軍撤收는 다시 舉論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自體的으로 對北韓 및 對蘇拒否能力을 同時에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이 確保해야 할 最少限의 拒否能力으로는

첫째 戰略核미사일 攻擊에 對한 對備策으로 自體核戰力을 確保하므로서 「고슴도

59) 極東의 主要海峽 및 基地



60) 國際問題調查研究所編, 前掲書, pp. 238 ~ 239.

「치」理論에 의한 拒否能力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駐韓美軍에 「크루즈」 및 「퍼싱Ⅱ」 미사일이 配置되어 있다는 時事도 있다.

둘째 蘇聯이 太平洋艦隊의 威脅을 自體的으로 해소할 수 없지만 南進抑制 및 海岸封鎖를 방어하기 위해 海軍力을 強化시키는 것이다. 특히 韓國은 貿易依存도가 높아 貿易航路의 威脅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極東에는 121 隻이 蘇聯潛水艦과 21 隻의 北韓潛水艦이 活動하고 있어 그 威脅을 加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安保的 威脅을 감소화시키고 유사시 海岸封鎖를 저지할 수 있는 潛水艦의 確保와 對潛能力向上, 그리고 機雷敷設에 對한 掃海能力을 充分히 確保해야 할 것이다.

셋째 防空網體系를 現代化하여 對미사일 및 對空能力을 보강해야 한다.

넷째 全國土의 要塞化로 敵攻擊에 의한 피해를 最小化하고 아울러 투입된 兵力에 對한 「레지스탕스」基地를 確保해야 한다.

다섯째 韓國의 軍事力을 최소한 北韓의 수준으로 增強시켜 나가면서 自主國防을 實現해야 하겠다.

韓國은 軍事力 增強에 의한 自主國防態勢가 確保되어 질때 軍事力 中級國家로서 西獨처럼 自體安保를 다져 나갈 수 있으며 또한 統一戰略推進에도 優位에 설 수 있는 가장 基本的인 方策이 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單 行 本 )

1.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80 年代 日本外交의 方向」. 서울 : 國防大學院, 1981.
2. ————— . 「戰略概念」. 서울 : 國防大學院, 1982.
3. ————— . 「國際安保環境」. 서울 : 國防大學院, 1982.
4. 國際問題調查研究所. 「東北亞 四強의 軍事力 現況」. 研究資類, 第 1 輯, 1980.
5. 閔丙天. 「韓國安保論」. 서울 : 大旺社, 1981.
6. 朴在圭. 「韓國安保論」. 서울 : 博英社, 1981.
7. ————. 「東亞細亞의 平和와 安保」. 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 1974.
8. 白鍾天. 申正鉉. 「國家安保論」. 서울 : 日新社, 1972.
9. 李茂雄. 「安保와 統一政策」. 서울 : 大旺社, 1982.
10.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서울 : 書香閣, 1977.
11. ————. 「韓國의 安保環境 II」. 서울 : 考試研究社, 1980.
12. ————. 「國際關係理論」. 서울 : 博英社, 1982.
13. 崔一榮. 「國家安全保障論」. 서울 : 國防大學院, 1975.
14. 洪鍾赫. 「政治地理學」. 서울 : 平和出版社, 1968.
15. Collins, John M. *Imbalance of power : An Analysis of shiflig U.S, - Soviet militatry strength*. San Kafaal Califo : Preselie Press 1978.
16. Solomon, Richard H. *Asian Security in the 1980 S : Problem and Policy for a time of transition*. California : The Rand Corporation, 1979.

17. Rhee, Sangwoo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 : Sogang university press, 1983.
18. The United States Air Force. *Selected Soviet military writings*. Washington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論 文 )

1. 金甲喆. “韓半島 周邊情勢와 우리의 安保,” 「自由公論」, 1984.1
2. 金永學. “蘇聯의 世界赤化戰略,” 「共產圈研究」, 1982.4.
3. 金容九. “소련 太平洋艦隊의 現況,”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981.
4. 金容顯. “北韓의 對蘇傾斜徵候와 軍事情勢 : 소련의 極東武力強化를 中心으로,” 「共產圈研究」, 1981.12.
5. 金裕南. “韓·美·日協力關係 : 1980 年代의 安保的 視角,” 「國防研究」, 23, No, 2 (1980.12)
6. 金一相. “蘇聯의 海洋政策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1983.
7. 金學俊.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 「自由公論」, 1981.8.
8. 羅昌社. “흔들리는 美·中共關係와 韓半島,” 「새물결」, 1982.3.
9. 文道彬. “北韓의 軍事力 增強實態와 韓半島,” 「自由公論」, 1983.7.
10. 閔丙天. “周邊安保情勢와 우리의 對策,” 「自由公論」, 1983.4.
11. 朴正煥.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判斷,” 「國防研究」, 1979.11.
12. 朴奉植. “東北亞 軍事秩序의 展望,” 서울대학교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No, 7 (1982) .
13. 裴名五. “蘇聯의 極東戰略과 軍事能力,” 「自由公論」, 1983.7.
14. ———. “80 年代 美·中共·蘇關係가 韓半島에 미치는 軍事的 영향,” 「國防研究」, 23 권, No, 1 (1980.6).
15. 申仁燮. “80 年代의 四強關係와 韓國의 安保,”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2.

16. 俞世鎮. “蘇聯의 極東軍事力,” 「自由公論」, 1983. 11.
17. 李基遠. “新國際 軍事秩序의 背景과 展望,”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No. 7 (1982).
18. 李相禹, “美·蘇新冷戰의 意味와 韓半島 統一環境,” 統一論叢, 3권 2호, 1983.
19. ———. “相互편의에 의한 타산적 협조:韓·美軍事關係 기초,” 精神文化院, 韓·美修交 1世紀 세미나, 1983.
20. 李基鐸. “美國의 極東軍事戰略과 韓半島,” 「自由公論」, 1983.7.
21. 李善造. “中共의 國防政策과 軍事戰略,” 「自由公論」, 1983.7.
22. 李聖根: “1980年代 東亞細亞 安保構造의 諸問題,” 「統一安保」, 1983.9.
23. 張公子. “美·中·蘇의 三角關係와 展望,” 「北韓」, 1982.5.
24. 金正煥. “美·日의 極東防衛戰略과 韓國의 安保,” 「새물결」, 1982.
25. 趙在瑾. “美·中共軍事協力에 관한 小考,” 「國防研究」, 23., No, 1. (1980.6).
26. 崔敬洛. “日本의 軍事力과 韓半島,” 「自由公論」, 1983.7.
27. ———. “80年代 日本의 防衛政策과 防衛力 增強 展望,” 「國防研究」 23, No, 2 (1980.12).
28. 崔 榮. “變遷하는 蘇聯의 軍事戰略과 東北亞地域 安保維持에 관한 研究,” 外交安保研究院 論文集, 1982.12.
29. 韓昇洲. “四強關係와 韓國의 安保,” 「亞細亞研究」, 1984.1.
30. 黃義瑛. “韓·美·日安保協力 體制와 韓國의 安保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31. 關野英天. “中·蘇의 軍事 Balance 와 戰爭可能性,” 「共產圈研究」, 1982.7.
32. 江畑謙介. “北韓海軍의 艦艇と 裝備,” 「軍事研究」, 1982.8.
33. 高橋是人. “對蘇戰略의 確立을 急げ,” 「軍事研究」, 1979.8.
34. 山崎太喜男. “國際軍事 情勢,” 「軍事研究」, 1982, 12.
35. 岩野正隆. “ソ連 地土軍의 戰略戰術,” 「軍事研究」, 1981.12.

- 
36. 西脇文昭. “日本の防衛力 増強,” 「世界週報」, 1981.7.
  37. “SOVIET MILITARY POWER,” U.S. Government, 1983.
  38. Arnitage, Richarel L. “*United states defense Policy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FORUM」, (1983.summer).



(Abstract)

**The Reinforcement of the Soviet Union's Military Forces  
In the Far East & Security of Korea**

**Lee Kwang-il**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h Sung-jun

In the 1980'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ssumes an aspect of suspense under an uncertain conditions. Especially, the Soviet Union is considerably building up the military forces in the Far East where mutual interests among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Red China and Japan are involved in.

Compared with the total military forces of the Soviet Union, their military forces in the Far East have 25% in the ground troops, 30-40% naval power, 25% air power and 30% nuclear power, respectively. It has contributed to forming north-south axis, connecting North Korea, Vietnam and Afghanistan.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in this area,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is constructing th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with Red China and Japan threatened by the Soviet Union.

South Korea lies to a buffer zone between these bloc systems, so that it is threatened to its national security. The Soviet Union attempts to communize South Korea, gate of the Pacific, for the purpose of the collapse of west-east axis and paving the road to ocean.

At present, South Korea, which is so inferior in the military forces to even North

- \* A these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4.

---

Korea, in fact, can not protect itself from the military threat by the Soviet Union.

Accordingly,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oviet Union's threat to South Korea are required:

1. Reinforcing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friendly countries & inducing the confirmed security commitmen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s security & maintaining the security cooperation line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2. Aggrandizing the military power of South Korea itself & minimizing the threat from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nuclear weapon.

